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所 朝鮮日報社

社說

제팔회유치원 원유회 (一)

今日에 이르기를 고응도치도 제자식이 할한하다고 하는데 하물며 사람으로서야 누가 제자녀를 귀애하고 사랑하지 안하랴? 제 자녀를 귀애하고 사랑하는 것은 모든 동물의 본능이어니 사람이라고 해서 무엇이 다르랴? 그러나 도리켜 생각컨댄 자긔의 자녀를 한갓 제롱거리로 삼아서 동이나 어루만지고 응석이나 밧는 것으로서 만족하기에는 넘어나 소중한 존재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모든 장래는 오즉 그들의 것으로써 우리의 모든 포부와 이상도 오즉 그들을 힘입울수바게 업는까닭이다. 그런데 재래로부터 우리 조선서는 어른들을 조경할줄만 알엇다뿐이지 실상 어린사람들을 위할줄은 잘 아지 못 하엿다. 거기 따라서 우리들은 장래를 바라보기위하야 살지못하고 항상과거를 돌아보기위하야 살아 온 것이다。이제부터는 우리도 어린사람들을 떠밧들기로 하자. 그래서 과거보담도 더 빗난 조선을 가지도록 하자.

二

본사주최의 유치원원유회는 지역으로 오즉 서울안 유치원에 국한되고 시간으로 오즉 단 하로에 지나지 못 하야 물론 우리의 정성보담은 오히려 적은 회합이다。해마다 이 회합을 치를때마다 우리는 그윽히 그러한 늣김을 품케 된다。그러나 이미 회ㅅ수를 거듭한지 여덟번이라 그동안 참예한 어른과 어린사람의 수효가 몟십만에 이를 것이니 오즉 그들만이 우리의 본의를 이해해 주어섯다면 그 어이 결과가 적다 한할 것이랴? 그보담도 본사에서 한번 유치원원유회를 시작하자 각지방에서도 다로아 그런 회합을 개최하고 잇거니와 그 영향의 미치는 구석 구석을 전부 따진다면 도리어 예상보담도 의외로 커다란 효과를 매저 주는 것이 아니랴? 이것은 결코 우리들로서 자회자찬의 선전이 아니라 사실그대로다。모든 난관을 무릅쓰고 꾸준이 이회합을 계속하야 가는데는 실상 이만한 사회적 공헌을 긔약하는바다。

三

만일 이 회합이 사회적으로 적지 안한 공헌을 한다고 할진댄 그공로는 본사에 잇다는 이 보담도 각 유치원의 경영자라든지 보모선생이라든지 그 여러분께 잇다고 보아야 한다 이 하로의 회합을 위하야 그 분들이 얼마나 고심과 노력을 하고 잇느냐는것은 한께 그회합을 준비하고 잇는 본사가 아니고선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노릇이다。그럼으로 한편 원유회로 인하야 그러케 고심할 것이 무엇이냐는등 하로를 유쾌히 놀리기 위하야 그처럼 노력할 것이 무엇이냐는등 딴의견을 제출하는이도 잇스나 그러한것은 모다 이회합속에 숨어 잇는 본의를 모르는 소리다。어른들의 조선에 대하야 어린사람의 조선을 부르짓고 과거조선에 비하야 장래조선을 부르짓고자 우리는 이 원유회를 열어는 것이니 단순한 하로의 노리로써 이 원유회를 보아버리어서는 오해요 착각이다。

四

세사 그런 의의가 업다고하야 장 일년열두달을 가야 별로 유쾌한 날을 주지 못 하는 우리자녀에게 하로를 자유롭게 놀리는 것도 또한 조치안하랴? 오즉 우리는 이회합의 범위를 좀더 넓히어 전경성아니 전조선의어린사람을 다모으도록 하는 것이 유감이요 또이 좋은 범위의 회합이나마 좀더 조하지 못 함이유감이다。요컨댄 우리의 성의보담은 오히려 큰 열매를 맷는데 만족하나 우리의 성의 그것이 여러가지의 조건으로 제한됨이 섭섭한 일이다

津村氏의懲罰動議 貴院本會議可決

但津村氏議員拜辭勅許되면 懲罰自然消滅

軍部도 이以上不追及

【東京電話同盟】十五日 貴族院本會議는 前日將校의 忠誠의念을 論하야 드듸여 海軍의 重大失言을 한 津村重舍氏가 冒頭에 失言을 取消하고 陳謝를 한다함으로 衆議院議員 官吏傍聽席은 다 滿員의盛況이오 特히 官吏傍聽席에는 陸海軍將校十數名이 制服으로 列坐한것이 注目을끌다 一方 津村氏의 軍侮蔑의 失言에 對하야는 公正會에서 懲罰動議의 提出까지에 發展되엿슴으로 定刻보다 四十五分이 느졋게 即 午前十時四十五分에 至하야 振鈴, 近衛議長 議長席에 나아가 자못緊張裡에 議員의 入場을 기다리고 同四十八分開會 井田磐楠男(公正)發言을要求하야 昨日의 津村氏의發言은 자못 遺憾된點이잇다. 議院法第九十入條에 依하야 同氏를 懲罰에 付하는 動議를提出한다 고 說明하고 近衛議長으로부터 二十名以上의 贊成이잇서 動議가 成立되엿음을 告하고 이리하야 過半數의 贊成을 得하야 貴族院最初의 懲罰動議는 成立되엿다 다음에 寺內陸相 昨日의 津村君의 演說中 軍의 名譽를 爲하야 反省을 促하는 津村君은 特殊한 一例를들어 將校의 忠誠의念은 兵卒보담 稀薄하다는 意味의말을 한것은 甚히 遺憾이다 將校의 忠誠의 念은 불타는것과가티 熾烈하고잇다 津村君의 意見은 名譽를 損傷하는것으로 津村君의 反省을 要望한다 고 述하고 日程을 變更하야

一、東北興業株式會社法案(政府提出、衆議院送付)
一、東北振興電力株式會社法案(同上)

右二案을 一括上程하야 次田法制局長으로부터 提案理由의 說明이잇섯고 質疑에入하야 淺田良逸男(公正)으로부터 質問이잇서 馬場藏相이 答하고 井田男이 自席에서『適當한機會에 質問한다』고 述하야 委員附託(以下略)

【東京電話電通】津村氏에 對한 貴族院의 懲罰委員會는 島津忠重公을 委員長으로 午後一時半부터 開催하기로되엇는데 津村氏의 議員拜辭가 委員會開催前에 勅許되면 委員會는 自然消滅될터이다

【東京電話電通】十四日의 貴族院本會議의 失言으로해서 津村重舍氏는 辭表를 提出하고 貴族院에서도 懲罰委員會에 附하기로되엿는結果 同氏는 아무른 貴族院議席을 失할것은 明白하므로 陸軍으로서는 이以上 追及치안키로되엿다 海軍도 亦是 이以上 追及치안코 本問題에 關해서는 一段落을 告하게되엇다

津村氏辭職正式發令

【東京電話同盟】十四日貴族院本會議에서의 失言問題로 十五日午前辭表를 提出한 津村重舍氏는同日午後三時五十分 左와如히 辭表가聽許되여 正式으로發令되엿다

貴族院議員 津村重舍
依願免貴族院議員

委員會를設置코 外交陣의刷新에邁進

【東京電話同盟】十四日午後의 衆議院豫算第一分科會에서 夏鍋勝(民政)芦田均(政友)兩氏等으로부터 外交機能의 刷新을 要求하고 아울러 在外外交의 任에잇는者는 참으로 國家의 經綸을 行함에 足한 人物을 派遣하라고 要望한바잇섯는데 有田外相도 現內閣의 庶政一新의 方針을 堅持하고 目下 堀內次官에게 命하야 從來의 外交能率委員會와 別個로 委員會를 設置하야 右目的의 具體案을 作成하기로되어 着着準備를 進行中이다 該委員會에서는 智育偏重 外交官養成法을 고치고 참으로 人物 國策遂行에 當할수잇는 人物養成에 留意하는外에 人材登用 人事刷新 外交官採用數 本省 在外公館의 機構와 그 數等에 關하야 檢討하려는것으로 可及的速히 具體案을樹立하기로되엇다

히總統誕生日祝賀行進

【伯林發同盟】第四十六回 誕生日을마지한 아돌프 히틀러總統을爲하야 去四月二十日伯林動物園內 크라이네·스테른에서 盛大히 精銳獨逸陸軍의 大祝賀行進이잇섯는데 寫眞은 탕크隊를 閱兵하는 히틀러總統

北中滿洲間密輸는 責任中國에잇다

英米兩國의調査依賴에對하야

外務省에서回答發送

【東京電話電通】北中에 南京政權의 成立된以來 滿洲國으로부터 北中에 對한 密輸는 增大되여 特히 冀東自治政府의 關稅引下는 益益그傾向을 助長하는 傾向이잇다하야 英國政府는 去二日 駐日大使크라이브氏를 通하야 日本外務省에 調査를 申請하엿고 米國側도 이에 呼應하야 十三日 使를 식혀 英米兩國政府에 對하야 回答을 行하엿다 同回答內容은

一、北中의 密輸는 人絹、砂糖等인데 二十數割이라는 高率關稅를 課하는데서 基因하는것임으로 中國側이 稅率을引下하면 密輸는 中止될것이다
一、北中의 稅收入을 全部中央이 吸收하고 地方行政에 充當하는額이 적음으로 地方政權이 密輸取締에 誠意를 缺하야 그때문에 密輸를 助成하는傾向이 잇다 이러한 組織을 改革은 困難하지안는以上 根本的으로 關稅引下及 北中政權의 財政分離의 必要를 示唆한것이다

日本政府의見解

【東京電話同盟】北中密輸에 關하야 英米와 如한 外國諸條約에 關稅收入을 目標로한 諸國의 東京駐在大使는 各各 外務當局에 對하야 密輸取締에 關하야 要請한바잇섯는데 右에 對한 政府의 見解는

一、北中密輸가 發生된 것은 冀東、冀察兩政權의 地方收入이 全部中央에 吸收되므로 密輸取締에 對한 熱意를 缺하는同時에 高率關稅가 密輸를 獎勵하는 結果를 招來하는것이 最大原因이다
一、密輸는 唯獨 北中에 끈치지안코 南中과 如한것은 實로 年額 約一億에 達하는 形勢으로 이 防止는 國民政府에서는 有效한 方策을 講究할것으로 日本政府의 關知할바아니다 國民政府와 交涉解決할것이다
一、그리고 本問題에 關하야 國民政府는 近近關稅引上을 愼重考慮할 模樣인데 英米의 抗議를 以夷制夷政策에 利用할 傾向이잇서 最後的 解決에는 아직 時日을 要할 模樣이다

復辟機運의濃厚로 獨墺關係緊張

伊太利의影響은減退

【維也納十四日發同盟】墺太利內 하프스부르그家 復辟氣運이 벗석 濃化하고 國際的으로는 伊太利政府의 勢力이 減退하야 獨墺兩國間의 關係가 다시 緊張化하게 依然減退하야 國內的으로는 합되것으로보인다

蘇極東艦隊除外의 交涉應諾與否注目

英國의海軍協定提議에對한蘇聯保目標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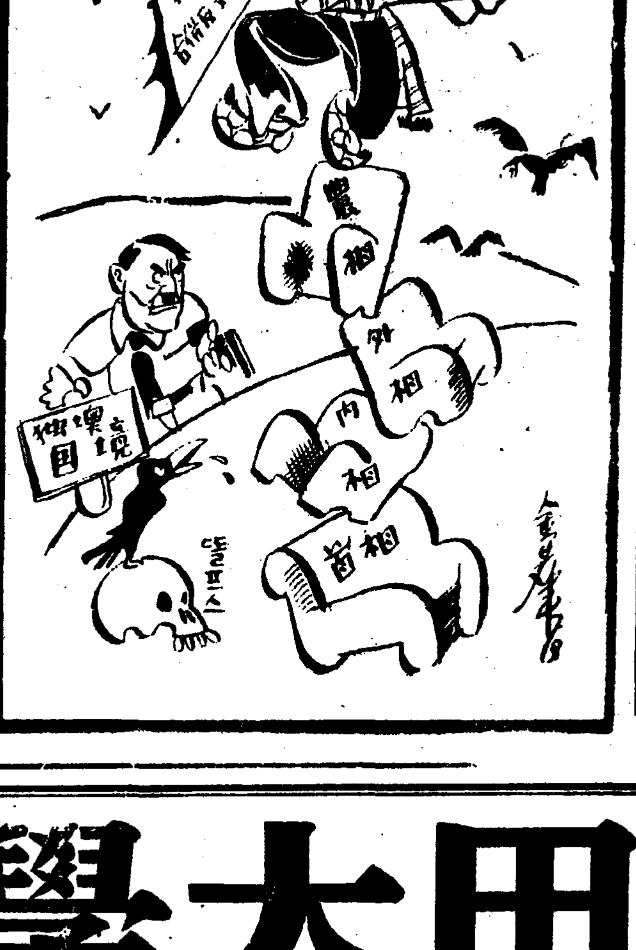
日獨兩國의協定參加、

【倫敦十四日發電通】海軍軍縮交涉에 關한 蘇聯의對英回答은 別電과가티 二項의重大留保條件을 附하고잇는데 이는要컨대 極東과 歐洲의二大相對國에對한 疑心暗鬼를 示하고잇는데 不外하다 蘇聯은歐洲에서는 獨逸이발틱海의制覇를 企圖하고잇다고念慮하고 잇는데 對하야 一方獨逸은 蘇聯의眞意를 疑心하고잇서서 過去數個月間에 亘하야 行하고잇는 英獨海軍交涉도 작고 中斷되어 進捗되지안는 狀態에 잇스므로 英國이 蘇獨間의 斡旋에 成功하면 獨逸은 新倫敦條約에 加入하고 同時에 蘇聯도 발틱黑海兩艦隊에 關한 協定을 受諾할 可能性이 업는것도 아니라고 보고잇다 그러나 日本이 對蘇聯海軍交涉을 提議함과如한일은 적어도 現下情勢에잇서서는 想像外라고 보고잇스므로 英國이 蘇聯의 極東艦隊를 別個로 交涉에 應할는지 그與否의 態度는 자못 注目되고잇다

英蘇海軍協定 回答手交

【倫敦十四日發電通】駐英蘇聯大使마이스키ー氏는十四日 英外務省에 바짓타르트次官을 訪問하고 英國의 英蘇海軍協定締結 提議에 對한 蘇聯政府의 回答을 手交하엿다 右回答中에는 極東艦隊建設에 關한 完全한 自由와 歐洲艦隊의 質的制限은 同樣의制限을 獨逸이 受諾할것을 條件으로한다는 二個의 重大留保를 附한것이 判明되엿다 따라서英蘇海軍交涉은 英國이 이保留條件을 承認하기까지는 開始되지 안을것으로 보인다 回答內容은 如左하다

一、建艦計畫의 相互通告와 各艦種의 艦齡數 備砲口徑의 制限에 關한 三月二十五日의 英米佛新倫敦條約에 基하야蘇 으로 受諾함
一、但 日本이 蘇聯과의 海軍 軍艦協定에 參치안는限 極東海軍力의 情報交換을 拒否할 뿐아니라 그 軍艦噸數及 備砲口徑制限에 應할수업스므로 極東에서는 完全한 自由를 留保함
一、또 歐洲에서도 情報交換及 質的制限은 獨逸이 同樣의 傾向을 受諾할것을 必要條件으로함



時事漫畫 맞솟元帥의 方法으로 맞솟防止는 以夷制夷가될는지모르나 서투른 曲藝로 돌프스의 前轍을 밟지나 안할는지?

旣提出法律案의 通過에 全力傾倒

其外의豫定法案은來議會로

政府、會期不延長方針

【東京電話電通】政府에서 特別議會에 提出할 法律案은 現在 審議中인 米穀自治管理法案을 爲始하야 四十四件 그外에도 十數件이 豫定되엿섯스나 議會의 審議狀況은 會期가 짧은 關係等으로 考慮하야 十四日 廣田首相 藤沼、永田、吉田三長官間에 協議한 結果 緊急을 要하지안는것은 通常議會로 넘기기로하고 各省에 撤回를 求하고 이미 提出完了된 右四十四件을 政府提出法律案의 全部로 하고 다만 此等諸法案의 兩院通過에 努力하기로 決定하엿다

【東京電話電通】今議會도 十四日로써 會期의 半을 지나고 十日밧게 남지안케되는데 貴衆兩院이 모도 從來에 업는 熱意를 다하야 政府提出法案의 審議를 急히하고 잇는데 不穩文書取締法案을 爲始하야 米穀自治管理法案 其他 重要法案의 前途는 樂觀을 不許함으로 廣田首相은 十四日夜 衆議院本會議散會後 院內大臣室에 藤沼書記官長을 招致하고 今後 後半期의 議會對策에 對하야 協議를 遂하엿는데 右協議結果

一、貴衆兩院에서 行할 審議狀況은 從來업는 熱心을 보히는 豫算은 來十六日 貴族院에 送付되고 其他 重要法案도 續續 衆議院을 通過하야 會期中에 거이 全部가 兩院을 通過하게되엿슴으로 目下情勢로는 政府로서 會期延長方針을 取할必要는업다
一、米穀自治管理法案은 前前議會에서 衆議院에서 修正可決된것을 그대로 再提案한것임으로 多少論議는잇드라도 衆議院을 通過할것은 確實하다 衆議院을 一次나 通過한法案인以上 貴族院에서도 結局可決될것이다
一、不穩文書取締法案은 十四日 衆議院의 質疑에 纔하야 無修正通過는 困難할는지도 알수업다 不得已한境遇에는 不穩文書는 惡性의 所謂怪文書에 限定한다는程度의修正에는應할것
一、午生文相의 漢字廢止는 文相의 十四日自發的釋明으로 貴衆兩院이 모도 釋然하게되엿는데 今後發展되리라고는 생각되지안코나 今後이러한 議員의問題를 惹起치안토록 各閣僚가 注意할것 等意見에 一致되엿슴으로 首相은 書記官長으로부터 各閣僚에게 그 旨를 傳한後 來議會에 定期對策에 萬遺漏업기를 期하기로되엿다

廿三億의大豫算 衆院無事通過乎

實行에對한希望附、協贊키로

政民等各派黨議決定

【東京電話電通】總額二十三億을 突破한 膨大한 今年度實行豫算에 對하야 衆議院은 八日부터 豫算總會를 開하고 四日間에亘하야 廣田內閣의 內治、外交、財政、經濟施設全般에 亘하야 質疑를 試하고 다시 十三、四兩日와 分科會에서 各省別로 詳細한 批判을 加한 結果 政、民、昭和、國同의各派는 모다 十五日 本部에서 代議士會 또는 院內에서 幹部會와 代議士會를 開하고 豫算案에 對한 黨議를 決定하야 十六日의 本會議討論에 際하야 各黨이 各各 自黨의 主義政策에 立脚하야 豫算案에 對한 最後的論議를 行하야 政府를 鞭撻督勵하고 豫算實行에 關한 希望과 警告를 發하고 協贊을 與하야 貴族院에 送付하게될것이다

社大黨以下小派는 豫算返上論에邁進

【東京電話同盟】政府提出의 豫算案에 關하야 社大黨은 이미 廣田內閣의 不信任意思를 表明하고-이를 返上하기로 決定하야 十五日의 院內代議士會에서 右趣旨를 十六日의 豫算總會에서 龜井貫一郞氏를하여금述케하고 同日의 衆議院本會議에서 河上丈太郞氏를 세워 豫算返上論을 行하기로되엇다 그리고 第二控室도 豫算返上論이 有力하야 國同도 廣田內閣不信任의 意思를 包含한 豫算返上을 行할터이다 또 第一控室도 第二控室、國民同盟의 三者가提携하야 野黨的立場을明確히하기로되엿다

滿洲事件賜金 六千四百五十萬圓

【東京電話同盟】滿洲事件行賞賜金은 이미 大部分手續을 終了하야 近近 交付될터인데 總額 六千四百四十九萬六千圓中 五千七百二十三萬二千圓은 公債로써 交付하고 남은 七百二十六萬三千圓은 現金으로써 交付할 豫定인데 內譯은 如左하다 (單位一千圓)

陸軍省	四九、四六二
海軍省	一〇、九一七
外務省	五二五
朝鮮總督府	五二〇
關東局	八四五
其他	一、二二六
合計	六四、四九六

不穩文書取締法案 委員會

【東京電話電通】衆議院의不穩文書等取締法案 委員會는 十五日午前九時十五分 開會하고 委員長熊谷直太氏(政友)를 互選하고 卽時散會하엿다

人事·集會

◆金永鍵氏(佛領印度支那하노이東洋考古學硏究所員) 今般休暇로 歸國케되여 十七日午後三時二十分 京城驛到着豫定

夕刊後市況 十五日

◆大阪 短期 氣配◆

大新	七五二〇	(不變)
鐘新	一五〇六〇	(一〇低)
日產	七二九〇	(不變)
東新	一三四八〇	(不變)

◆橫濱 生糸 後引◆
當限 七〇九〇〇 先限 六八九〇〇

◆藏井 人絹 後引◆
當限 六一〇〇 先限 六〇〇〇

朝鮮人重要官吏中의 大異動關係豫想

朝鮮人의警察部長새로實現?

五月末頃에一齊發令

總督府의 大異動은 今月末頃에 一齊히發令될터이라는데 今般異動中에 잇서 朝鮮人官吏의 異動中 重要한것은 左와如히 豫想된다 知事級의勇退로는 李忠南知事와 高金北知事가 確定的이고 參與官中 一二名의 勇退說도잇는데 張黃海道參與官 金咸南參與官 兪平南參與官中에서 勇退者를 내일것이다

後任知事로는 金慶北參與官과 姜全南參與官이 有力한 候補이다 又參與官後任으로는 嚴總督府產業部長 兼任參與官으로는 嚴總督府社會課長이 榮轉할터이며 其他는 平壤稅務監督局 李稅務部長 李黃海道產業課長 李開城府尹等이 參與官으로 榮轉할터이다 總督府社會課長後任에는 中樞院書記官金大羽氏가 有力하고 中樞院書記官에는 慶北金產業課長과 平北金產業課長의 昇進說이濃厚하다

以外에 稅務監督局長과 警察部長을 各一人식 朝鮮人을 처음으로 任命한다고 傳하는바 此가 實現되면 稅務監督局長에는 平壤稅務監督局 李稅務部長 又는 姜全南參與官의 榮轉을 볼것이며 警察部長에는 中樞院金書記官의 榮轉을 볼것으로 이것이 實現되면 今般 異動은 前記 豫想과 달리 多少 變更을 볼듯 하다

官公立專門學校長 豫算協議會

十六日부터總督府서開催

學務局에서는 十五日에 開催된 大學及 專門學校敎育改善協議會에 出席키爲하야 各學校長이參集한것을 機會로 明十六日午前八時半부터 總督府第三會議室에서 專門學校以上施設事項及 豫算關係에 對하야 官公立大學專門學校長의 會合을 開催할터이다

西南派의要人 蕭佛成氏重態

胡氏死를悲歎卒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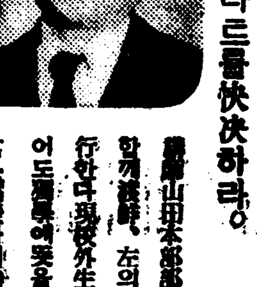
【廣東十五日發同盟】西南政務委員 蕭佛成氏는 十二日 身病임에 不拘하고 胡漢民氏의 臨終에 參與하엿는데 歸邸後 悲歎하든끗헤 卒倒되여 療養中이든바 十四日朝來 狹心症이 昂進하야 重態에 陷하엿다 氏는 老齡七十四歲로 多病한 몸임으로 자못 憂慮된다

朝鮮全土 獨學青年들을 위하야마침내

巡回講演開始!

뜻잇는諸君은모이여 獅子吼를듯고立身의스타트를快決하라。

講師山田本部部長、小倉參事와 함께渡鮮、左의各地에서講演을 行한다 現校外生은勿論 어도獨學에뜻을둔男女靑少年諸君은多數來聽하라 入場



無料入場者에記念品을進呈(講師는山田本部部長)

【日程】

釜山	五月十五日	午后六時	釜山公立普通學校
京城	五月十七日	午后一時	京城日報社來靑閣
仁川	五月十八日	午后六時	桂峴尋常小學校
咸興	五月十九日	午后六時	咸興第一公立普通學校
淸津	五月二十日	午后七時	淸津第一公立普通學校
元山	五月廿二日	午后七時	元山第一公立普通學校
平壤	五月廿四日	午后七時	白善行紀念館
大邱	五月廿五日	午后五時半	大邱府公會堂

早稻田大學の講義錄

最近、朝鮮에잇서서 靑年子女의知識慾은 그絶頂으로向上하야、續續히早稻田大學校外生이되고잇다。現在左의講義錄에依하야 工夫하는途程에잇는분은實로五萬에達하고잇다。諸君도萬難繰合하야 左의 會에出席할것은勿論、速히左의講義錄을읽어 本大學의校外生이되시라。

詳細는于先內容見本을 請求하야보시라

中等學校程度

中學講義	前期一ケ年 後期一ケ年 各一圓
商業講義	一ケ年 一圓
高等女學講義	一ケ年 一圓
電氣工學豫備講義	一ケ年 一圓

專門學校程度

政治經濟講義	一ケ年 二圓十錢
法律講義	一ケ年 二圓十錢
文學講義	一ケ年 二圓十錢
建築講義	一ケ年 二圓三十錢
電氣工學講義	一ケ年 二圓三十錢

內容見本

見本을請求할時는葉書에必히自己가希望하는講義錄의名을明確히記入하라

申込所 東京·牛込 早稻田大學出版部 振替東京一一三三

土着民生活不安과 共軍의逆心爆發

虐殺現場은阿修羅地獄演出

鏡泊湖의同胞虐殺事件詳報

虐殺原因

【牡丹江】 지난 사월이십칠일 북만녕안현(北滿寧安縣鏡泊湖)에서 동남방으로 약사십리지점에잇는 동포부락에 수십명의 공산군이 습래하야 십여명을 학살식히고 물품까지 약탈하야 당지일대는 참화무도한 아수라지옥을 일우고잇다함은 이미 본지에 보도한바이거니와 그후순양과 동경성(東京城)에서는 일만관헌이 정황조사차로 현지에급행한것이 불모변지(不毛僻地)인지역관계로 반월이지나는오늘까지 조사대의 소식은묘망하나 二호관헌의발표한바에의하면 두목 구왕(九王)이인솔한 약팔십명의공산군으로서 전기부락에침입하야 동포농민녀명을 학살하고 가옥(家屋)에방화한다음 경박학원(鏡泊學院)에서 동남간오십리에잇는 산기슭에서 또한 마구로 이주하여가든 로약남녀동포팔명과 박신구와 연길에서 향하든 이시형의 가구전부를 우마차에맨채 빼아서버리고 그자리에서 일행을 칼로찔으고 소리처 울며어린아히들까지 몽둥이로때려죽여 현장은 피바다를일으는동시에 어버이들의 죽어가는것을보고 ……

원인을 캐여보면 단순한약탈이목적이 아니고 매변증가하는 동포농민들때문에 본토민들의 생활이불안을느끼는것과치안유지로 일만군토벌이 극도에달하매에서 번거지를떠나게되는 공산군의불평과 여심이폭발되고 또 배타사상(排他思想)이 대두하여 금번의비참참절한사태를 일으킨것이라는바 산산히 허터저사는 재만이백만동포농민들로서는 더욱큰공포를 늣기고잇다고한다

投身防止新方案

―監視警官常置와배사공雇用等―

龍山署에서講究中

요사이 봄에서 여름으로 철이 바뀌면서 한강(漢江)에는례년보담 자살자가 부쩍 느러가는 현상이여서 벌서 한강의어름이 풀린이래 오늘까지 도합 스물다섯명이라는 끔찍스러운수를 보이고 잇는터이므로 소관룡산서(龍山署)보안계에서는 이것을 방지하기에 고심하고 잇다한다 즉 종래로 다리 란간에다가 잠깐만 기대리 시오! 한 표어는 몃해 동안 실시해 보앗스나 별반 효과를 보지못하니만큼 자살하는 무리들을 회심시킬 방도가전혀 업다시피 되여 나려오는 터이므로 이를 유감으로 생각하고 올 여름에는새로운 방식을 채용할 모양인데즉 인도교 엽헤 잇는 한강통(漢江通)파출소에다가 상비경관을 증원시켜가지고 밤낫으로 번가려 경계를할가? 그러치안흐면 한강연안에서 선박업에 종사하는사공들을 특히 고용해서 한때도 쉬일사이업시 감시할가?의 두가지방법중 그하나를 취하고저 지금 강구하는 중이라한다

水銀柱의昂騰따라 蠢動하는傳染病

十八日飮食店을一齊檢索

일기가 점점 따뜻하여짐을 따라 시내 전염병발생수가 격증하여가는 상태임으로 당국은 예방주사에 대주력를 다하고잇스며 일편 시내각경찰서에서는 인제까지 등한시하여 왓든 과자 파실 밀크 두부 가모보꼬 등의 제조판매 또는 그를 취급하는 사람 및동거자에 대하야 오는 십팔일부터 보균자의 일제검사를 시작하야 방역진의 강화를 도모하리라한다

破産者續出

會寧商店街

【會寧】 작년까지도 다른지방에 비교하여 보면 경기가 조타하야 일반이 호감을 가지고잇던 회령일대는 금춘이후 부터 졸연불경기가 심각화하여 지면서 이미 파산당하고 행방불명된자도 사오인이되고 이압으로 불안으로 파산당할 상점이 수십호에 달하리라고한다

義城公普全燒

原因과損害는調査中

경북의성군(義城郡) 의성공립보통학교(義城公普校)에서 십오일오전여섯시 사십분 불이일어나서 백마호평이나넘는 건물전부를 모다태워바린후 여덟시사십분에 불을잡엇는데 손해와 원인은 지금조사하는중이라한다.

關釜臨時連絡船修繕

관—부(關—釜)련락선의 밤항행은 가는것이나 오는것이나 편입만원상태이여서 손님이 만흘때는 못타는사람들이 생기는까닭에 그것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림시련락선을 사용하고 잇는중 오는십팔일부터 팔일이십일까지 사이에는 어느배나 모다고치기위해서 "떡크"에 넛케 되엿스므로 일반려객은 손님이 만흘때에는 될수잇는대로 정긔련락선의 낫편을 리용하는것이 빈자리가 만허서 밤것보다 편리하다

新興郡下의大山火

被害面積千餘町步

三晝夜間을두고猛延燒타가 十三日에僅僅鎭火

【咸興】 긔보=함주군하기천면 흥리(咸州郡下岐川面興里)의대산화는 십삼일저녁에 일으러서야 삼주야만에 겨우진화되엿는데 이에대한 함흥영림서의 피해조사한바에 의하면 신흥군오봉산(新興郡五峰山) 함주군 하기천면의 황초령(黃草嶺)과 차흥리의 삼개소로서 모다 십일 아침때에 불이이러나기 시작하야 때마츰 부는 매결한 봄바람에 휘세는 더욱사나워 그가티 희유의 대산불을 일운것인데 오봉산(五峰山)은 십이일에 진화하얏는데 피해면적은 ……

例年보다더운것은 人體의"感受性"關係

溫度로보면一、二度의差異뿐

元山咸興地方…水原登興等은…特有한現象

립하(立夏)도 지난지 벌서삼일이나되야 체력으로는 여름이 되지 이미오라지마는 벚꼿진지도 몃칠안되야 아죽도 겨울양복조차 벗지못한이가 경성드뭇한이때 사오일전부터 갑작히 날세가 몹시 더웁기시작하야 거리에는 어느듯 맥고모자가 등장하고 여름단장을 말숙히차린 사람의수가 날마다 늘어가서 올여름은 몹시더웁것다는 녀가지게한다 그러나 온도로보면 그다지 례년과 차이가업서 이상도록 놉지안하나 금년에는 사월까지 날세가차서 례년보다 삼사도나 낫든것이 오월에 접어들며 별안간 례년 온도대로 기온이 회복되며 도리혀 이삼도 가량 노퍼저서 이삼일전에는 최고 이십칠도 이상까지 이르게가 잇슨관계로 일반으로 하여금 몹시 례년보다 금년은 더웁다는 생각을 갓게되엿다한다 그리고 동해안 즉 원산(元山)함흥(咸興)지방이 최고삼십도 이상에 달하엿다는것은 금번에처음잇는 현상이아니라 해마다이때이면 강원도(江原道) 함경도(咸鏡道)지방에잇는 특유한기상현상으로서 이현상을 열풍(熱風)현상이라고 한다는데 이열풍현상은 일본내지방면으로부터 고긔압(高氣壓)이 서쪽으로 진행하야 이지방으로떠저 머물러잇슴에 따라 공긔가 간조하여지며 이러나는 현상으로서 당분간이 긔온은계속되리라고한다

살길차저왓다 病든農村男女

鐘路署에SOS

살길을 차자서 서울로 올라온 중한시골 청년남녀가 가는곳마다 한게 별들이 시들어지는 인생애화 한토막—십오일 오전열시경에 시내종로서(鍾路署)보안계에는 울어갈뜻한 젊은 청년과 뫼동조차 밧못한 빵드른 미자한명이 들어와서 SOS를 구하엿다 그녀자는원산부상리(元山府上里)에 사는 리명화(李明花)(二○)라는 젊은 녀자로서 삼년전에 그의남편은 북해도(北海道)로 버리를떠나간후 구차하게살아오다가 지난이월하순경에 직업을 차자서 서울로왓스나 한달전에 시내종로거리에서 …… 몸붓칠곳이 되지못하고 일할수도업시 점점 병은더해가서 이제는 할수업시 되어 고향에서나 죽게해달라고 애원해온것이다 ▲전긔 청년은 전라북도전주군 우림면남정리(全州郡雨林面南亭里)에 본적을둔 송룡식(宋龍植)이라는 농촌청년으로 지난이월에 직업을구하려 상경하엿다가 고학배이들어서 다각게되어 그구원을 바드러온것이엇다

十八尺의高樓에서 六歲小兒墜落(生存)

平壤、三中井百貨店의慘事

【平壤】 평양부내영정(榮町)구번지 박영창(朴永昌)의 장남 상빈(相彬)(六)은 십오일오후네시경 삼중정(三中井)백화점옥상 놀이터에서 놀다가 보도(步道)에떠러저 인사불성이 되엇다가 응급수당을 가한결과소생하엿다 …… 사백정보로 손해는 약칠천원이며 …… 여원의 거액에달하엿다

軍部側의斷言

【東京電話】 =룡일본군의한교십오일오후네시발표=이번북경에서 발생한 "미"돈"의원인은 룡군측에서 …… 다하다

세균학적으로 검사를 한결과 …… 종래룡군에서 위하야 …… 결정하얏다.

獨逸製拳銃

平壤府內에서發見

【平壤】 십사일 오후 평양부외 당상리(堂上里) 고목(高木)벽돌공장에서 원료 흙을 파는장소에서 인부가 권총한자루를 발견하고 경찰에 게출하엿는데 이 권총은 독일제(獨逸製)"칼바—드"식 팔련발로 실탄일곱방이 드러잇섯다 어떠한동긔로 실탄이 재워진채로 지하에 뭇치어잇섯는지는 알수업다한다

各方面에서 賞品遝至

人氣沸騰의聯合園遊會

본사주최 제일회 전경성유치원 련합원유회에대하야 각방면으로부터는 이날 상품으로쓸 여러가지 물건을 작고보내오는터인데 십오일에는 또 다음과가튼 물건이 기증해왓다

▲南大門市場 商人聯合會 林檎 一千三百個 ▲金千龍商店 林檎 百個 ▲元胤洙商店 現金二圓 ▲仁丹朝鮮宣傳部 仁丹 二千五百包

大學專門野球戰

十八日부터擧行

朝鮮專門學校體育聯盟 第一部의野球戰은 十八、九兩日間 午後一時부터 龍山球場에서 擧行하기로된바 그對陣은 다음과갓다

▲十八日午後 大學對藥專 同四時 延專對大塚 ▲十九日午後三時 決勝

官專運動會開催

朝鮮專門學校體育聯盟에서는 十七日 午前九時半부터 京城運動場에서 大運動會를開催할터이라

蹴球審判員을派遣

從來의 올림픽競技中陸上、水上等에 日本에서도 審判員을 派遣한일이 잇섯스나 球技에는아즉것 올림픽審判員을 派遣치안엇는데 今夏伯林올림픽 大會本部로부터 日本蹴球協會로 蹴球競技審判員一名을 派遣하야주기를바란다는 通牒이 잇섯슴으로 同協會에서는 竹腰重丸君(早大出)을推薦하기로한後곳 그手續을完了하엿다한다

實業庭球第六日

鐵道、專賣各勝

春季實業庭球리—그第六日은 十五日午後四時부터 朝銀對鐵道戰(朝銀코—트)과 殖銀對專賣戰(殖銀코—트)을 行한바 다음과가튼戰績으로 鐵道와專賣가 各勝하엿다

【朝銀】 ○加藤 第一라운드 4…0 金乙鉉× ×野川 4…0 鄭士遜○ ×岩田 0…4 渡邊○ ×木尾 1…4 千秋○ ×福津 0…4 井上○ ×城田 4…4 古山○ ×岩谷 0…4 朴季根○ ×庄下 4…4 張源甲○ ○橫司 2…4 【鐵道】勝

【專賣】 ○加藤 第一라운드 ×中川 0…4 鄭士遜○ 渡邊 【專賣】勝 ×第二라운드 ×板東 1…4 白潤輔○ ×朴和 ×金時新 2…4 李正王○ 向井× ×達世港 ○李正來 4…2 朴寅世× ×河村 4…2 金世羽× 金潤豊×

運動界集會人事

▲朝鮮體育會 第十七回 定期總會는 今十六日午後三時半부터 府民館中講堂에서 開催할터

今日의運動

▲野球=春季實業리—그 第六日 鐵道對京電(午後一時半) 殖銀對府廳(午後四時半)京城運動場 ◇中等校리—그第五日 京商對京中 午後二時 龍山球場 ▲庭球=春季實業리—그 第七日 午後二時半부터 府廳對朝鮮(殖銀코—트) 殖銀對鐵道(殖銀코—트)

中等校A級에 優勝한 養正高普軍

本社後援 第六回 籠球聯盟戰 9

臥薪嘗膽六年만에 養正高普遂制覇

徽文高普의奮鬪도長惜을남겨

籠球聯盟戰圓滿終幕

朝鮮籠球協會主催와 本社後援아래 第六回籠球聯盟戰의 終幕을裝飾한 中學校A級決勝戰… 養正高普對徽文高普의게임은 十五日午後五時부터 體育基督教靑年會館에서 白熱的人氣속에 열리엇다 지난十一日에行한 第一戰에 十二對十이란 한골差로敗한 徽文軍으로서는 雪辱戰이라면 養正軍은 昨年同聯盟戰決勝에 中東에게一點差로敗하야 長恨을품은지 一年만에 또다시決勝에 臨하엿스니 兩軍의鬪志는 絶頂에達하야 最後의一戰이 다음의鬪況과가티 壯烈한 接戰끄테 養正軍이勝利하야 臥薪嘗膽六年만에 드듸여 覇業을이루엇다 이리하야 同聯盟戰委員長 金圭冕氏로부터 養正軍에게 優勝盃와및副賞을 授與하니 이로서 同聯盟戰은 圓滿히 閉幕되엿다

◇決勝戰

養正17(9…8 / 7…7)14徽文

中等校A級決勝戰=養正高普對徽文高普戰은 同午後五時四分부터 宋基宇、李惠澤兩氏審判아래 開戰되엿다 徽文은 養正에게 一敗한뒤이라 雪辱의 意氣衝天하여 게임은 劈頭부터 興奮과緊張속에 進行되드니 開戰二分에 養正 張聖壽君의 長投와 필正軍 氣勢를올리니 徽文軍도 直下、오으로 一擧四點을너허 養正軍 氣勢를올리니 徽文軍도 撤한 鬪志로 漸次 威力을 發揮하야 三分 尹恒燮君의 長投成功으로 四對二、四分에 『떠블파울』로 兩軍各一點을 너허 五對三으로 養正依然 리—드、뒤니어 養正 元裕喆君의 필드꼴으로 二點을 加하니 七對三으로 스코어는 버러지자 徽文 尹恒燮君得意의 와이드꼴으로 九分과 十分에 連續四點을 挽回하야 七對七同點되니 이로부터 戰況은白熱化하야 場內는 騷然하더니 養正白南震君 自由投를利하야 一點을 加하야 八對七로前半은養正리—드 後半戰에 드러가 一分에 養正白南震君自由投成功으로 一點을先得하야 九對七、五分에 養正申宗淳君의 野投成功과 徽文G李明天君의 『원핸드꼴』으로 十一對九養正리—드六分에 養正金根培의 長投成功하야 十三對九로 나아가다가 同七分에 徽文尹恒燮君의 自由投로 一點을 加하야 十三對十으로 養正陣地를 더욱 堅固하야 得點을 許치안터니 徽文李明天君의 롱꼿과 一自由投로 三點과 黃奎源君의 自由投로 一點을 加하야 十四點을獲得하엿슴에反하야 養正軍은 元裕……

反	前	後	【徽文】		【養正】	前	後	反
3	1	0	姜日東	F	白南震	1	1	1
0	0	0	沈德潤	F				
4	6	1	尹恒燮	F	金根培	1	2	1
3	0	1	黃奎源	C	申宗淳	0	4	3
3	0	0	申國浩	G	元裕喆	2	2	1
0	0	5	李明天	G	張聖壽	4	0	0
13	7	7				8	9	6

籠球聯盟戰最終日

【中等校B級】

順位		培央道普協一	比率
1	培材	：○○○○○	1.000
2	中央	●：○○●○	0.600
3	道商	●●：●○○	0.400
2	普成	●●○：○○	0.600
3	協實	●○●●：○	0.400
4	一高	●●●●●：	0.000

【中等校A級】

順位		徽養徽中青	比率
2	徽文	：◎○○○	0.600
1	養正	◎：○○○	0.800
4	徽新	●●：○●	0.250
3	中東	●○●：○	0.500
4	青學	●●○●：	0.250

【倶樂部】

	延普高	比率
延專	：●○	0.500
普專	○：●	0.500
高商	●○：	0.500

今日

全京城幼稚園聯合園遊會

―市內廿四個幼稚園二千園兒動員―

―午前十時 於[illegible]武臺―主催 朝鮮日報社

藥先送服藥後代金支拂

(査定制限一劑式)

代金全額後拂

不老長壽、强精回春

●百補丸은 東西洋補藥中最極上 第一完全 第一조흔 絶對特上効力신기합니다

氣力이 活潑하여지고 早○가 完全히낫고 筋骨이 든든하여지고 이업서지고 腎氣不足이나 腎水不足이나하는 생각은 夢中에도 안이하게되며 補全身 百補하야 生理的으로 精神的으로 完全히 年이되고 不老長壽케되니 이에서 더조흔補藥이 어데잇습니가 更少하여지 當分間 藥先送하고 代金全額後拂條件으로 販賣하오니 이藥의 効力을 疑心할餘地가 秋毫만치도 업스실것입니다 只今곳注文하시요

人生의急大問題

●나무가 마르려고할때에 肥料와 물을 주지아니하면 그나무가 엇더케됩니까

●사람이 性慾이줄고 氣力이업고 勇氣가 나지아니하는때에 補藥을 아니쓰면 마르려는 나무에 물아니준것가티 悲慘하게 됩니다

百補丸의 藥効는左와如히 참 굉장합니다

一、百補丸을 服用하면 ……

二、精力이 …… 不眠勇力하여도 …… 百補之然田効力偉大之證

三、飮食을 自然히 마히 잡수시게되며 ……

四、一週日만服用하면 ○○가 不知中○이 되며 …… 壽仙風 皮膚에 주름살이 펴지며 不老更少年이되며 …… 人生最大의 欲望을 必히 滿足하게되며 永久히 幸福한身體의 所有者가 될것입니다

五、遠山松葉散을 能히세일뭇 百補丸을 服用하기 始作한지 五日間만지나도 몸이 輕快하여지며 …… 합니다 ……

六、腎臟이 增加될 ……

七、몸의 健康은 家庭의 ……

八、百補丸은 完全無缺한補劑이될 ……

九、精氣가大增進하야 ○○의 回數가 不可思之勢로增加됨

十、血色이 조와지며 얼골에주름살이 퍼지며 젊어집니다

十一、힘이생김니다 神經衰弱가튼것을 업서집니다

十二、사람이 친칙하고 젊지안어 집니다

十三、長久運服하면久淋도消滅될 ○○衰弱不振이 잠신기 가묘하올

十四、淋疾根治後는回腸키위하야 必히百補丸을服用하여야합니다

●百補丸은 絶對的 一方的 効能者내는藥이 아니요 道師神人 葛玄眞人의 長久効力나는秘方藥입니다 漢學者들은 다잘아시는道師입니다

代金特價 一劑拾圓・實用二十日

神人道師 葛玄眞人의秘方藥

根本的回春壯陽强精强筋强骨借力・平生無病健康長壽劑

補腎・補陽・補腎・補肺・補心・補腦・補脾・補胃・補全身百補・不老更少年仙藥

百補丸

藥効가 廣告와 달르면 代金을 送金치 마시요

●代金全額後拂販賣를하니 藥効의最大確實最極上은不問可知

第一、第一、참第一、정말第一조흔補藥인故로藥先送하고代金後拂約束으로 販賣하고잇습니다

그런즉이藥의効力이얼마나 確實한지는諸氏도不問可知일것이올시다

●性慾이減退한사람 ●手足과下焦가 恒常濕冷한사람 ●消化不良한사람 ●恒常氣力이업고 ●活氣가적은사람은

早老할症狀이요 長壽못할 症狀이오니 一日速히 第一完全하고第一조흔 補藥 百補丸을 服用하시와 更少年이되시요

代金後拂

百補丸의 大特効를天下사람에게 急速히알게하기爲하야 代金全額後拂條件으로 販賣합니다 만흔試服後代金을 先送하여주실人士는 官吏이던지 私民이던지 富者이던지 紳士이던지 無産者이던지 農民이던지 商工人이던지 …… 全朝鮮道知事 全朝鮮郡守 全鮮面長 全鮮官公立學校長 全朝鮮金融組合理事 …… 京城市內町總代 …… 地主에게 限하야 後拂注文에應하고 …… 오니 失禮이오니 普通注文으로 注文하시면 支拂하시옵나이다 代金은 先金又는引換代金으로 …… 送金이 …… 되지마시요

◆百補丸은平和堂外에絶對無함 …… 百補丸을注文하시요◆

後拂注文法

注文時에 「代金後拂注文」이라쓰고 藥代金十圓은 試服後 支拂할터이니 百補丸特製一劑보내주시요 …… 注文法은 …… 先金을受하오니 …… 注文에는必히 捺印하여주시요

普通注文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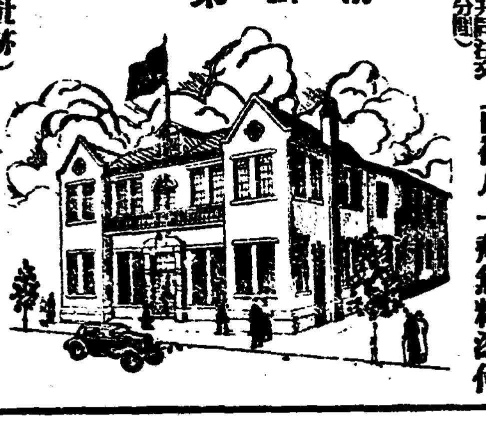
平和堂振替五番에送金하시거나 爲替로나 先金十圓을보내주시던지 百補丸特製一劑代金引換付送하시오

普通注文人께特典

普通注文人께는 送料도 本社負擔하고 乜本社苦心의秘方 …… 秘藏되엿든秘方藥起쳐 …… 三劑以上共同注文 百補丸一劑無料添付

(期限當分間)

朝鮮第一 信用販賣高



京城堅志町(五・七)(前中央日報社跡)

平和堂株式會社藥品部

振替京城五番・電光六三一番

富川에도모기등살

【仁川】유사이래에 처음보는금번의피폐(疲弊)는 말하분에자별을 연상케하는바 또한가지 어상한소식은 경기도안회모기가 부천군(富川郡)일대를 날아다니며 벌써부터 피를 빨아먹고 가장심하게 려주고 잇다는데 가장심한것은 가축들의피해다 그중에도 「도야지」와 「소」들의 피해가 가장만타 그런데이번모기가 가축들의건강에 영향을 마련식히고 잇서 가장우려된다 한다

初夏도들자마자 市內毒蚊이大繁昌

各家庭에서는陋濕한곳의消毒이必要

原因은昨冬의雪量僅少로

금년에는 봄이 늣게온 대신에 녀름은 의외로 빨리온듯하야 립하(立夏)가 지난지 순일(旬日)이 못되여서 벌서 제법 성하(盛夏)나 닥쳐온듯한 감촉(感觸)을 주어서 특히 계절(季節)에 대한 신경(神經)이 남유달리 예민한 도회인의 입에는 『에이 더워』소리를 무심코 부르지게한다

특히 금년에는 례년보다 격별하게 일죽이 모기가 번식하야 벌서 시내에서도 모기장업시는 견듸지못할만큼 기현상을 보이고잇다 변중에도 금변의모기는 유달리 독이 심하야 잠자리에 들때에는 아모치도안턴 아이가아침에 깨여보면 갑자기 눈통이가 퉁퉁부어올르거나 다리와팔에 부스럼이 생기거나하야 일반가정에서는 적지안흔 걱정을가지고잇는중이다 이에대하야 모전문가에게 물어본즉 다음과가티 말한다

대체로 눈(雪)이 오지안한때에는 곤충류(昆虫類)가 잘죽지안코 계절에대한 감촉이 예민하기때문에 요새얼마동안날세가 더웁자 곳번식한까닭이다 그리고 일죽나온 곤충류는 그대부분이 자긔의호신상(護身上)특별한 독긔(毒氣)를 가젓기때문에 비교적피부가약한 어린이들은 그와가티 눈이붓거나 부스럼이 생기는것이다 이를 업세자면 더러운 물건에는 뚜껑을 씨우고 습긔가 잇는곳에는 자조 소독약을 뿌려서곤충류의 번식을 방지하여야할것입니다。

京畿沿岸各漁村 施設不備로非難莫甚

年生産은二百萬圓巨額

【仁川】변변증가하는 경기도연안일대의어촌에 수획고를본다면 부근어민의 변수획고가 팔십만원 도외에서 어획기에오는어민의수획고도동액에달하야 도합이백만원에달하는형세로 년년발전되고잇스나 당국에서는 어항으로서의수축을 아니하야줄뿐아니라 통신기관의시설도 불충분하야 여름장마기등에 조란당한사고등의보고가 지연되야 그피해가적지안타하야 부근어민들의불평이 적지안타한다

洋畫小品展

【仁川】향인 김택동(鄕人金宅東)씨의 양화소품전람회(洋畫小品展)은 십오일부터십칠일까지 삼일동안 시내 장곡천정 다방『푸라탄』에서개최한다

仁川海産物 輸出組合組織

生産者豪利는疑問

【仁川】소위서해안일대의 사천여어민의 리권옹호한다는 미명하에 경기도 어업조합련합회(京畿道漁業組合聯合會)가 탄생한지 불과오개월이못되야 일반상인들은 흥진계략과 판로확장이라는 명목으로 해산물수출조합을 조직하얏다는데 그내용을 조사한바에의하면 동조합은 이천구(口)이만원자본의 출마원을 목표로써 조직한것이라한다 그들의말에의하면 일반생산어업자들에게 시장에서 구입하는 상인들에게 특부의 구전을 밧는다하나 사실인즉 구입상인이 그들조합원뿐이라 시장표준가를 임의로 제정할수잇슴으로 자기네들이 구전을 내이는것이아니라 일반생산자에게 그만콤 싸게구입할것임에 결국은 생산자들주머니를 짜내는것임으로 어민간에는 이에대한불평이 점점높하가고 잇다한다

船遊中마른벼락

鐵橋工事中못이떠러저 ◇女給한명이重傷

【京城】십오일 오전 열한시십삼분경 시내합동정(蛤洞町)이십칠번지에살며 시내종로모카페ー의 녀급으로잇는 김을희(金乙姬)(二〇)(假名)란녀자는 한강에서 『뽀트』를 타고 공사중인 한강교미를 지나가다가 돌연 공사장에서 떠러지는 『보도』(釘)에 머리를 마저 피투성이가 되여 즉시 철도병원으로 다려갓다는데 생명에는큰관계가 업다한다

恨江? 漢江?

하로投江自殺三件

【京城】푸른물결이 뛰노는 한강에다 몸을던저 생목숨을 끈흔사람들이 어제 하루동안에만 세건이다 충남천안군 대흥리(忠南天安郡大興里)에두고 두어달전에 상경하야 시내모려관에 투숙하고잇든 김귀식(金貴植)(三〇)이란 청년은 자긔가 경영하든장사에 실패를하고 십사일아츰 그의처와 리별의 술잔까지나호고 한강교제사『빼ー어』에서 몸을던저 저세상으로갓다

또이날밤여덜시경 시내 삼판통(三坂通)륙십번지박씨(朴氏)(三六)란로파는 신병을비관하고 역시한강교제삼『빼ー어』에서 몸을던저죽엇다

또이날밤 열한시경 한강교제삼『빼ー어』에서 거문 양복입은 청년하나이 몸을던저 죽어버렷는데 그는 신원조차 모르고 시체들은모다 떠오르기만 고대하고잇다한다

府廳雇員試驗

應募者九十七名

십오일 오전여덟시부터 경성부청에서는 동회의실에서 고원시험(雇員試驗)을 보앗는데 응모자중에는 전문학교출신이 삼십팔명이오 중등학교졸업생은 오십구명으로 합계구십칠명이다。그중채용할인원은 약간명에 불과하다고한다。

新婚단꿈깨기前 出奔한新婦!

仁川署에搜索願

【仁川】지러가는 룡동을따라출가도가지가지

▲시내도산정(桃山町)오번지이호 리개업(李開業)의처 리효식(李孝植)(一七)은 지난십사일 그이웃 정춘근(鄭春根)이란자와 손을잡고 어대로인지 종적을감추엇다는데 전기정춘근은 리근에서소문이놉흔 유부녀유인마로써 인천서에서는 마수에걸린 신부보다 전기유인마를 엄중수사중이라한다

▲경성부(京城府)종로(鍾路)오정목이백이십번지 최영빈(崔榮斌)의아들 윤균(允均)(一七)은 지난십사일 오백원짜리 소절수를가지고 도주하얏다고 인천서에 수배가잇다고한다

海軍記念日

廿七日에記念式

오는 이십칠일은 제삼십일주년해군긔념일이므로 오후 네시반에 조선신궁광장에서 긔념식을거행하고 그날밤 여덟시부터는경성부민관에서 강연회를 개최할터이라한다

團體動靜 (十五日)

▲富平普通學校百二十名 入京當日退京

▲內秀普通學校卅名入京即日退京

▲京城職業學校七十五名歸京

▲開城滿月普通學校二百名 退京

▲開城商業學校四十三名退京

▲大邱壽昌普通學校百六十八名退京

世專病院職員에게

▲『세브란스』병원 남자병실에 일을 보고잇는 모씨는 왜 그러케 환자들에게 친절치 못한지? 나는 이십일전에 그 병원에서 퇴원한 사람인데 내가 입원하고 잇는동안에 그에게 바든설움이란 이루 다 형언을 할수업구료! 빽빽한말씨 퉁명스러운 태도! 한때는 분이 치바처서 병이 다더칠번 섯소 공공기관에서 더구나 박애(博愛)를표방하는 병원에잇는 사람으로 그래서야 될말이요? 감독당국자는 맹성하야 이런직원감독을 단단히 해줄수 업슬까요 (鍾路B·K生)

驛構內水道復活하라

▲경성역구내에는 원래 대합실에 수통을두어 차타려하는 이고온 손들이나 일반려객자들의 목축이도록하야 상당히 생각한시설이라고 녁엿드니 요지음와서는 이것을 떼지해버렷스니 이러한편리한 시설을새로만들기는새로이 잇는것까지업새버리는 심사는무슨까닭이지알다가도 모를일이니철도당국자는 다시생각을 좀할수업슬까요

第三回 文化刺繡講習會

時日 自五月十八日─至二十三日

場所 西大門町女子基督靑年會館

會費 壹圓

定員 五十名

主催 京城女子基督靑年會

後援 朝鮮日報社學藝部

엄마자랑압바자랑이

圓卓會議의議題

歷史는悠長! 四十年間積功

三層校舍도不日着手

貞洞公普篇

귀여운 우리의 제이세 제군을차저 그들의 명랑하고 순진스러운 자태를보고저 기자는 정동(貞洞)공립보통학교를 차저갓다서소문정쪽으로 꺽겨드는 골목이비저내이는 색다른 냄새를 피하면서 외인편골목으로 드러가려고하니 눈에뛰이게는 너무나적은 정동공립보통학교 입구라는 나무표가 서잇섯다 때마츰 한시간이라 운동장에는 선생을 중심삼아 어린아이들의 원탁회의가열리고 잇섯다

그러나 그들의 원탁회의는 리니 제재니 하고 야단치는를 순한 원탁회의하고는 아조 딴판이다

이원탁회의에 오르는 의제는 순진하고도 때뭇지안흔 의제를 호리러분한 인간사회에서는 어더보지못할순결그대로의론론이다 『우리 엄마는 이래요』『아니야 우리아버지는 이러터냐』『나는크면 조선에서 제일훌륭한사람이될터이다』『나는 돈만 하버어려 부자가될터이다』『나는 우리선생과가튼 선생이될터이야』 조고마한 입을 아물아물 옹지기면서 제각기 『나는!』『나는!』하는 말소리는 맛치 봉변판에우는 종달새와도가려 참으로 천연스럽고 귀엽성 그뿐이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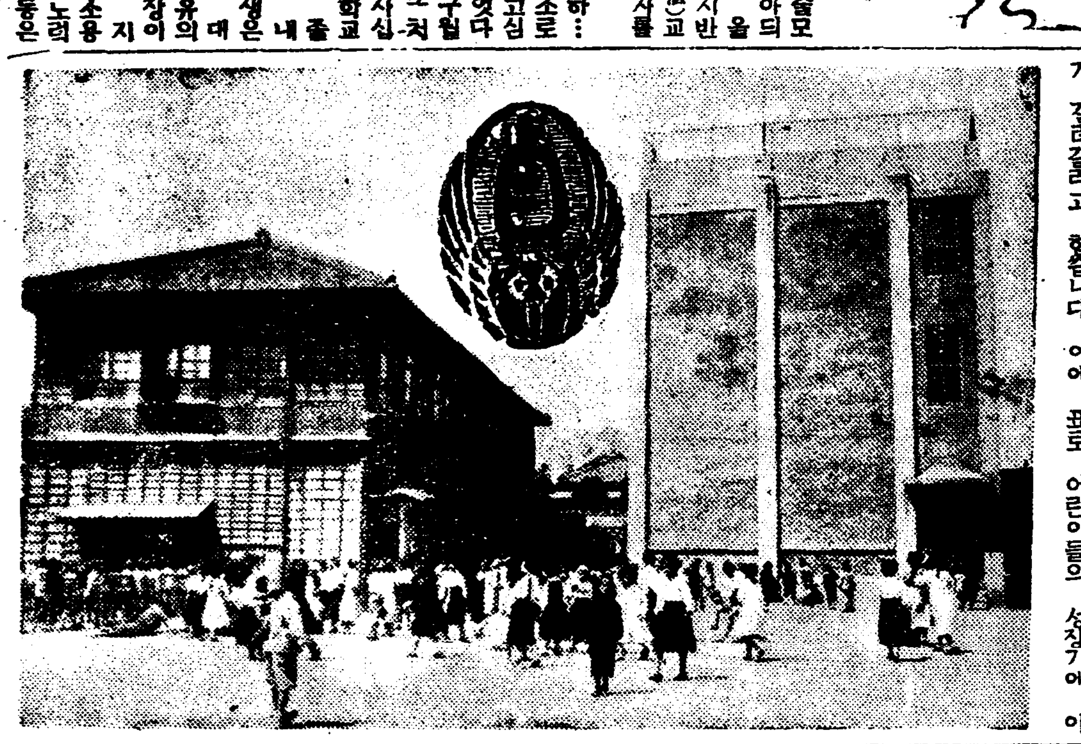
× ×

한참동안 떠들든 그들은 이런이야기에는 실증이낫던지 몰연히 이러서면서 선생을 끌고 운동장본판으로 달려가며 손목과 손목을 마주잡고 노래부르기를 시작하엿다 멀거니 그들을보고잇섯든 기자는 끄칠줄모르는그들의 단란한태도에 『아듸유』를 고하고 이층직원실로 올러갓다 어느때 차저가보던지 반갑게마저주는 홍범식(洪範植)교장선생의 명랑한얼골이 기자를 대하고잇섯다

『필요、이야기 하라고요 하……』하면서 선생 독특한 어조로 정동보통학교를 길러가는 고심담、자미로운이야기를들여주엇다

우리학교는 명치이십팔년구월 장곡천정(長谷川町)에 비로소 처음 개설되엿스니 어언간 사십여년 이라는 긴역사가 이학교를 중심삼고 기록되엿스며 졸업생이 일천팔백칠십이명을 내엿습니다、현재 우리학교학생은 대개 중산계급이하의자제가 대부분 임으로 특히그점에 유의하야 학교생활은 가정의연장이라는 의미에서 그에순응한 지도와 훈련을 위주로하야 소용잇는 학문을 배워주려고 노력하며 일변 우리교직원 일동은 언제던지 명랑이란 두자를 잇지안코 순진하고 천진스러운 그들의 동심을 자연스럽게 끝게 길러갈라고 힘씀니다 이에 따라 아이들도 모다 가정환경하고는 따로히 명랑하지요 더욱 우리학교는 효도(孝道)를목표로 어린이들의 성장기에 이런 정신을 단단히 뿌리박키게 하며 질소(質素)건실(健實)화충(和衷)모도가 아동교육에필요한 것으로우리학교의『모토ー』입니다 현재 우리학교 재학생수는 일천삼십일명이고、선생십오명에 네학급을 가지고 잇습니다、여기에 우리학교로서 깁분 소식은 현재의 교사가 협착하고 건물이 삼십년이상이나되여 대단히 불안중이엿든바 새로봉래정에 십사만원을드려 삼층양옥을 짓게되것입니다 오월중에 공사에 착수하야 십월말에는 완성될예정이며 현재설계의 십팔학급을장래에는 사십학급으로 확장할예정입니다 학부형사이에서도 이 신설계획에 가진 원조를 앗기지안코 현재예산관계로 중지되여잇는 강당(講堂)건축을 잇뜻는 유지들이나서서 매력히 운동임으로 이것도 불원실현될 듯싶습니다만은 이것이 실현되면 내외충실한 새교사를 가지게됩니다 이시기를마저 렬성잇고훌륭한 여러선생님들과 한하야 미력하나마 우리정동학교의 새로운 긴역사를지으며 일층아동교육의 완성에 노력할려고합니다

이외가티 우리 초등교육계의 깃거운소식을 들으면서 기자는 스스로 훌륭한 여러선생과 굿세고힘찬 제이세제군을 품에안고잇는 정동학교의행복과 전도를축복하며 발길을돌렷다



(사진은 교사와 회장)

印紙集合檢査

京城稅務署管內서 新府域까지日割決定

경성세무서(京城稅務署)에서는금번새로 편입된 지역에 까지인지세의 집합검사(印紙稅集合檢査)를 시행하기로 되엿다는데인지첩부의 요부사항(要否事項)에대하야 틀림업는것은 물론통히인지를 첩부하여야할 판취장(判取帳)통장(通帳) 수취서(受取書) 수형(手形)계약서(諸契約書)위임장(委任狀)등의 증서를 검사하기로 되엿다하다 그일할은다음과갓다한다

時日	場所
五月十八日	南大門通四丁目
	南大門小學校
同	鍾路四丁目
	夜間金庫內
五月十九日	竹添町一丁目
	西大門警察署前
同	漢江通三番地
	京龍舘內
五月二十日	鍾路二丁目
	파고다公園內
同	若草町一〇七
	本派本願寺
五月廿一日	本町一丁目
	三越前
同	本町四丁目
	夜間金庫內
五月廿二日	鍾路二丁目
	夜間金庫內
同	吉野町一丁目
	高陽郡廳內
同	黃金町六丁目
	共立無盡會社前
五月廿三日	漢江通十五番地
	龍山郵便局前
同	元町二丁目
	本願寺內
同	永登浦町
	京城府永登浦出張所

檢査時間은 每日 午前九時부터 午後五時까지라한다

자랑할만한 子宮病藥

女子醫學博士가 體驗하고推奬한

內服藥 命之母

外用藥 오기나球

●대하증의原因과治療法●

대하증이라는것은 月經以外에 局部에서 말근물이흘으기도하고 或은 고름가튼것이 흘으기도하는것인데、그原因은 男性에게淋疾이나 梅毒가튼 性病이感染되거나 月經時의 不注意와 房事過度나 腸炎、膣炎等의 모든子宮病으로부터 생기는것입니다 대하증의初期에는 고름이나、게란흰자가튼물이흘으다가 점점悪臭가나게됩니다 그러므로 대하증이잇으면 局部에서惡臭가나며 子宮內部의모든機關의傷害를밧미아마 後日에惡結果가 반다시생겨서治療를할내야할수업시되여 一生을버리게됩니다。이와가티무서운대하증을보통부인들은 女子에게는당연히누구에게던지 잇는것이니하고治療를 게을이하는부인도잇으나 病菌은더욱繁殖되고 患部는刻刻으로破傷되여올따라 身體는점점衰弱해지고 腸胃虛弱해지며 手足腰部冷하며 下腹引痛等의모든症勢가併發하게됩니다 그뿐안이라、대하증가운데는 酸性의排泄가잇는關係로 男子에게바든精虫을毒殺식히므로不姙症이되거나、或姙娠한다하드래도 流産이나早産을하고마는悲慘한運命에빠지게됩니다 이와가튼病이 잘못된부인은 適當한 治療方法을찾지못하야 남몰은 한숨과눈물로 번민하며지금까지 平和하던家庭도 子女를出産치못하는탓으로 차츰不和하게되며 흔하면 시부모와남편에게 소박까지 밧는수가 허다하오니 하로바삐治療를 게을니말것입니다

新藥이 發達된 現文明時代에 子宮病根治藥이 업을理가잇겟습니까、여긔서、대하증을 根本的으로根治하시면 얼골에화색이돌고 주름살이펴지고、아름다워지며、손발이더워지고、顯著히淨血作用을하야 體內의微菌이나毒素를全部滅殺하고 病弱해진細胞를 回復식혀주는結果、血液이淨潔하게되는同時에 不順하던月經이順調롭게되며대하증이根治됩니다。또한、外用藥으로 膣部에直接使用하는 오기나球도잇사오니 內服藥命之母를服用하시면서外用藥오기나球를併用하시면 더욱速治됩니다、오기나球는 무시기前에한개식 膣部에 挿入하야두면하로밤동안에 그藥效를顯著히알수잇습니다

『命之母』와『오기나球』는 三十餘年의 기나긴歷史를가지고 東洋婦人患者는 勿論이오近日에는西洋婦人患者들께서도 服用하시고 子宮病을全治하고 愛兒를出産하신實例가 허다한즉其人의好評과 本舖에到着한禮狀과 兒의寫眞이證明하오니 여러분家庭에子宮病으로苦痛하는患者가잇스면하로바삐『命之母』와『오기나球』의良效에 全快하시기바라나이다더욱이『命之母』와『오기나球』는東洋婦人의體質에 가장適合하게理想的으로 製造販賣하는藥이므로누구던지 一次試用하시기바라나이다

대하증이三週分에 全快되여姙娠햇소

前略『命之母』를付送해주어서 처음으로 服用해보온즉 氣分이조아지며 겨울에도추위도몰으고 健康히지낸후昨年여름에는 姙娠까지하야 姙娠中에도別故업시 健康히지내다가出産햇습니다 産後에도『命之母』의德澤으로以前에는不順하던月經이 順調롭게되며 대하증도根治되고 지금은結婚當時보다도 조금도젊어보이고 어린애도튼튼히자람니다 後略 (上記寫眞은 小川아끼子)

『命之母』는 各地有名藥店에서도販賣하지만特히本舖로 註文하고자하는분은 藥代金을 振替東京五〇五〇番으로 또는 小爲替로보내시는것이 第一安全하고 便利하오나 萬若郵便物마자세히 記入해주시면 代金引換으로 適當한藥을發送합니다

今日 ─이新聞을보시고

書封하야 五厘切手를붓처서東京市京橋區入舟町三、命之母本舖로보내시는분、또는 藥書로申込하는분에게 三大醫學博士가指示하야朝鮮말로 알기쉽게쓴 婦人의 自宅治療書와 命之母의說明書를노나드려드리며 無代進呈합니다

婦人病良藥 ○命之母의主治效能○

月經不順 白帶下症 子宮出血 赤帶下症 下腹腰痛 手足冷症 頭痛眩氣 子宮痙攣 히스테리 輸卵管炎 卵巢炎 貧血症

腦神經衰弱과産前産後의婦人에게大效함

═藥價═ 六日分 壹圓 一三日分 貳圓 二〇日分 參圓 三五日分 五圓

東京市京橋區入舟町三 命之母本舖·笹岡藥房 振替東京五〇五〇番 電話京橋二八八七番

天賦의福音

皮膚病에 꼭쓰지안흐면안될 六一〇ハップ

皮膚病이 가장만흔다고 天下에高評을밧는 六一〇ハップ는 化學의進步에依하야 發明된 藥劑를 配劑하야 專賣特許를得한것입니다……

六一〇ハップ의特徵

皮膚病으로 근질근질가럽고、알는것은 病菌이 寄生繁殖하야 繁殖하고잇는까닭입니다。

六一〇ハップ

△皮下深部까지 잘浸透하야痛疾인 이런皮膚病菌을顯著하게殺滅식히는作用을가지고

△體內에잇는 毒素를 體外로 排出식힘으로 病源을 根本的으로 驅逐하며

△身體에 自然的으로 賦與된 疾病을 自癒하는 機能을 活潑케 促進식힘니다。

그럼으로이런 三大作用이 相俟하야서 迅速하게 疾病을 根治하는것입니다。

근질근질가럽고、욱신욱신알코、더러운 고름이 흘는 不快한 皮膚病에는只今곳……

六一〇ハップ를 試用하시면直席에見効

모기、벼룩、빈대물린데도即効

△主治効能

옴、무좀、음부습진、마른옴、腫氣、땀띄、其他皮膚病、痔疾、胃腸病、婦人病、神經痛、

◎洗面에 一二滴쓰시면 얼골의 살결에 潤이나고 고와지며 ◎婦人의 月經에도 만히使用합니다 ◎沐浴물에너어쓰스면 血液循環을 잘하고、精神이 爽快하여지고、身體도 더욱튼튼케되며 僅少한 費用으로 全家族이다 溫泉氣分을 맛볼수가잇습니다。

藥은 各地主要한 藥房에잇스며、尿液대로팔고잇스니 물에다서쓰시요、說明書에 詳細히적혀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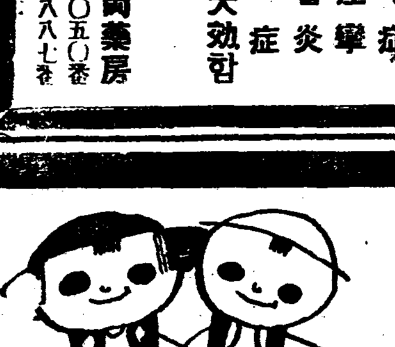
斯界의權威

小兒科 內科 皮膚科 婦人科 醫學博士 推奬

(定價) 三十五錢 一圓 二圓三十錢 三圓五十錢 六圓

發賣元 名古屋 武藤鉦合名會社藥品部

손에손을잡고원기잇게놉시다! 感氣가들면實母散을服用코速히고칩시다



感冒解熱特効藥 實効散

本舖 東京市神田區明神下 天然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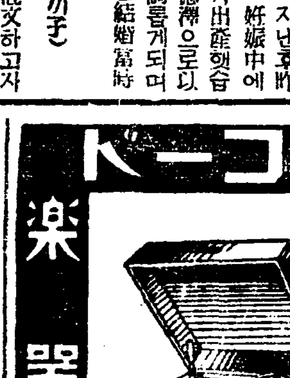
NO.141

靑少年의 好成績 通信社員募集

小學卒業程度의學力이면누구든지될수잇는事務簡易、月收多大 年少諸君이自宅에서業務의餘暇에될수잇는高尙한職業

二錢切手封入申込 大阪市東淀川局前 國民書院

レコード 樂器 蓄音器



カタログ進呈

卸問屋 名古屋西區伏見町三 菊谷商店

振替名古屋一八五三一番 電話本局三四四五番

浪花館

五月十三日ヨリ五月十九日マデ

上映時間表 第一回 第二回 第三回

總輯豪華版 雪之丞變化 一・〇〇 三・四〇 七・〇〇

巨匠衣笠貞之助責任編輯 松竹ブロック總動員 總輯改訂豪華版

"雪之丞變化"

雪之丞江戸乘込から本懐まで今度はぶっ通してごらんになれます。

次週二十日より『江戸節めをと參』『白き處女地』『大學よいとこ』

五月十五日부터五日間午前十一時부터六時半까지續映 七時半부터始映封切料金階上三十錢階下二十錢均一

伊太利토비스社超特作全發聲 監督 푸릿쓰、라ー쓰

사랑은 끗나다 (戀は終りぬ)

主演 田中路子 우리 쏘프라노의明暉로世界樂壇에 光榮을빗내든田中路子의로만치크한사랑은이映畵一篇에高通하기까지 踏오단치다

英國BP超特作音樂映畵 監督 몬드쓰타인

꼿피는時節

樂聖「슈ー벨트」의 一生을通하야 一貫의表現的이그이에머리에서名曲을짜아내는어던生活을描寫한大映畵!

松竹키네마社特作 작은三版

妹の告白

人生의창백한고백이 映畵에서말한다

仁寺町 電光三六二 朝鮮劇場

古跡의都市京都

吳海軍工廠을觀察後歸路에

特派員 咸尙勳

▲高級織物産地 우리一行은 九日 아츰 京都驛에 到着하야 아름다운 京都의 景과 안개에 싸인 比叡山의 山容을 바라보며 大阪支局長 金光洙氏等의 歡迎을 밧고 京都에 到着하엿습니다。京都는 人口 百四萬으로 적은 人口가 아니나 名古屋、神戶가튼 商工業이 年年 發達함에 不拘하고 山間에서 古都를 그대로 가지고 産業、交通 그다지 보잘것 업서 漸漸 그 地位를 일허 只今은 東京、大阪、名古屋、神戶에 다음가는 第五位의 都會로 되엇습니다。京都의 今後는 亦是 商工業의 都市보다도 名勝古蹟의 都、學問、宗敎의 都가 되겟지오。우리는 먼저 商業會議所를 차자 觀光課長의 親切한 周旋으로 午前中은 西陣織物館과 京都市染織試驗場을 보고 午後 京都商工會議所를 비롯한 名所、古蹟 等을 찻기로 하엿습니다。

◇

西陣織物館은 下層에는 西陣織을 陳列하고 上層에는 西陣織의 織造實演을 하고잇는데 西陣織의 特色은 普通織物과 달라서 一一히 손을 가지고 짜는 點이라 말하자면 手工業인 點입니다。勿論 다른 紡織도 사람의 손으로 짜지만 그러나 西陣織은 북(梭)을 數三 乃至 三十이나 가지고 짬니다。特히 實習中의 機械의 짜는것을 보니 女工의 손을 몹모양으로 맨드러가지고 그것으로 올(絲)을 골르고 손으로 북을 이리 저리 보내고 밧고합니다。옛날에는 이것을 짜기에 四五人乃至六七人 걸렷스나 佛蘭西人 짜카르가 新機械를 發明하여 저가티 簡便하여젓스나 亦是 人工을 만히 드린다 합니다。그러니만치 西陣織工場은 數百人 쓰는 工場이 第一크고 그러치 안흐면 百以下도 만타 합니다。

◇

京都市染織試驗場은 染色、織造의 二部로 되엇는데 染色部에서 注目을 끄는것은 織物이 機械에 끌려 나가면 新鮮한 色이 들어 織物에다 紋을 찍어버리는것이엇습니다。이찍은것이 바래(脫色)지거나 업서지지 안는것이 若干 重要한 것입니다。織造部에서 가장 놀랠것은 레-쓰를 짜는데 그 무늬 놋는 紙이 上下前後各百七十의끗을 한곳에서 職工一人이 圖案에다 點만 찍으면 그것이 모다 움직여 模樣을 놋는다。어찌면 그 機械가 그리 精巧하며 그 機工은 그리 熟練이 되엇을가요。그러하니라 이러한 機中에서 만흔데 끄허지도 織物이 계어지지 안는다니 機工들의 責任이 重한것은 말할것도 업고 一般으로 紡織工場에 사람을 만히 드리지 안는것도 이 機工의 心理를 생각지안케하엿는가합니다。

◇

京都御所는 明治初年까지 皇居로 되엇든 곳이오 只今은 宮內省의 管理에 잇고 그城內의 周圍가 十里以上이 된다니 그 樹木과 宏壯한 點으로보나 그 안을 通行할수잇는 點으로보아 京城의 景福宮가티 京都市民의 一種의 公園이 되다싶히 합니다。銀閣寺는 足利將軍八代 將軍 義政의 別莊으로 꾸며 노흔 곳으로 그곳에는 豊臣秀吉 織田信長 弘法大師 其他 여러 古人의 遺物이 陳列되어잇고 現建物은 四百七十年前의 그대로 잇는것이라하야 有名합니다。圓山公園은 東山밋에 잇서서 市民들의 노리터로 되엇스며 淸水寺는 京都市를 俯瞰하는 高臺에 잇서 一眼에 볼수잇는 곳인데 數百尺의 斷崖에다 쭈기둥으로 버티어 지어 有名합니다。三萬三千三百三十三驅의 佛像이 잇다는 三十三間堂이 잇서 오니 日本 東寺 大伽藍안에 昔日의 佛敎의 隆盛했든것과 兵亂、雄姿其他로 千一體의 佛像이 남고 기둥이 三十三、幅의 기리 六十六間이란 三十三間堂을 바라보며(時間이) 지난 東本願寺를 거처 日本의今日佛敎界가 얼마나 佛敎에 影響되엇는가를 알수잇섯습니다。

產業視察團第二信

◇

▲比叡山에서 十日 아츰 우리 一行은 京都의 名勝인 比叡山과 嵐山을 구경하기로 하얏습니다。比叡山은 只今으로부터 一千五百餘年前 傳敎大師가 延曆寺를 짓고 開山하얏다고하야 有名하지만 只今은 京都서 比叡山을 가라면 出町橋에서 電車를 타고 八瀨까지가서 게서 케불카로 四明嶽까지 가서 徒步로 山頂에까지갑니다。그러나 우리는 四明嶽에서 空中케불카를 타고 延曆寺近處로가서 게서 다시 케불카로 琵琶湖畔인 坂本까지 나려가 배로 濱大津을 돌러 다시 京都에 와서 잇니다。延曆寺에선 琵琶湖一帶가 眼下에 드려오는데 湖上을 다니는汽船、湖畔平野를 닷는 汽車 모다 실러가티 히미하야 그림가티 보이나 琵琶湖에서 배를 타고가면 宛然 大海를 航行하는感이 잇습니다。

◇

四條大橋까지와서 다시 電車로 三四十分 西行하면 嵐山이잇스니 嵐山의 風光도 比叡山에서지지 안습니다。山容을 흐르는 大井川、桂川의 우에 진 峽谷인데 그中에 來往하는 小舟마치 一幅의 名畫와 갓습니다。中流의 배를띄워 茫茫히저어 上流로 올라가니 갈수록 골은 좁고 좁은 길에 正히 仙境을 밟기에 足합니다。

◇

嵐山風光을 遊覽하고 京都를 떠나 吳에 오니 午前七時。旅舍에서 얼른 朝飯을 먹고 吳鎭守府産業案內所로 갓노라니 途中에서 우리를 歡迎하러오든 海軍特務中尉 小野源作氏와 下士官 今田勝氏가 길을 돌려 先頭에 서서 우리를 案內해줍니다。첫번 본것이 吳海兵團、그 다음이 潛水艇、海軍工廠、軍艦天龍이엇습니다。海兵團은 海軍의 養成所인데 新入한 初年兵은 이곳에서 六個月의 訓練을 바다가지고 軍艦을 搭乘한다 합니다、그러느니만치 이곳에서는 海軍에 對한 一切의 基礎知識과 訓練을 밧는데 이곳에 設備가 相當히 素養하나 이것도 다 比하면 實習합니다。이곳에는 全部 五千八百人의 海軍이 잇는데 그中 三千五百名이 志願兵이며 其他는 二年兵、下士官、士官들이라 합니다。마침 이날은 初年兵의 卒業觀兵式을 한다고 우리를 案內하는데 그嚴肅、活潑함에 驚嘆의 自歎함을 늣겻습니다。

◇

軍人外에는 드리지 안는다는 下士官食堂에서 點心을 먹은 우리는 다시 潛水艇구경을 갓습니다。潛水艇의 겉은 아무 보잘것이 업는배나 一旦 그 內部를 보면 그 全部가 機械로 充滿되고 사람의 活動할 餘地는 極히 좁은데 놀랏습니다。말로만 듯든 水雷發射裝置、反射鏡、無線電信等을 볼때 海上의 軍人이 얼마나 冒險하고 잇는가를 알앗습니다。小野中尉의 말에 依하면 우리와 본것은 第三流에 屬하야 …

◇

海軍工廠은 東洋第一로 世界的으로 자랑할만한것이라 하는데 面積이 八十萬坪에 從業하는 職工이 三萬二千人이엇다하니 그 規模가 얼마나큰것을 알것입니다。그런 海軍工廠의 部分 部分을 보앗스나 專門家가 아닌 우리로서는 完全히 理解할수업스며 只今 建造中의 日向、伊勢는 三萬餘噸이나 一旦 完成되면 數는 적고 性能은 몃倍나 는다 합니다。何故오하면 이前에는 燃料로 石炭을 때스나 只今은 重油를 쓰기때문에 煙突이 두세式必要치 안코 其他 機關이 簡便하게 되엇기 때문이라 합니다。大砲도 여러 種類를 맨드는데 그中 가장 性能의 큰 四十糎砲는 重量이 二百七十噸이오 七十秒동안에 富士山의 二倍되는 距離를 다라난다 하며、이것을 한번 쏘라면 四十五圓이라 하며 同艦의 水兵은 二千餘名을 가지고 百人을 실을수 잇스며 …

◇

… 吳海軍 天龍은 三萬噸이라기 안되는 軍艦이나 一旦 이우에 올라서니 … 大砲、水雷、探照燈等을 一一히 見學하고 艦員들의 生活을 생각하엿습니다。吳에서 이러케 見學을 잘하엿든것은 小野中尉의 誠意에 依한 것으로 … 吳港을 떠나 宮島로 가는 中 … 이것으로 遺憾이 되여가기 어렵다습니다。(終)

온갓經濟機關을 無漏歷訪視察

매로는名勝古跡을巡遊玩賞

產業發展에寄與莫大

本社가 昨年 三大慶事를 當하야 十五大事業을 發表實行한 가운대의 하나인 產業視察團 派遣은 今年부터 年中行事로되어 第二回產業視察團을 지난 四月二十四日 派遣케되엿는바 視察團은 그間 博多、阿蘇山、別府、神戶、寶塚、大阪、奈良、名古屋、東京、日光、京都、吳、宮島等 十數處의 都會及名勝地를 視察하고 지난 十三日 豫定대로 無事히 歸着하얏다。그동안 視察한 範圍는 本社特派員의 通信과 마찬가지로 織物、醸造、紡績、製藥、石鹼、齒磨、製菓等의 輕工業으로부터 電氣、造船、自動車、陶磁의 重工業에 이르는 諸工場과 取引所、商工會議所、데파트、新聞社、博覽會等、온갓 經濟機關을 含하얏스며 때로는 火山、湖水、名山、大川、寺院、溫泉等 自然과 人工을加한 文化를 보아 實로 日本內地의 全般的 文物을 接하고와다。本社는 이번 產業視察이 반드시 朝鮮產業發展에 莫大한 寄與가 잇기를 期待하거니와 團員諸氏의 所感을 들어 天下에 發表함도 또한 그 收穫의 一端을 表示하는 所以가 될것으로 밋는바이다。(一記者)

產業視察團員感想

到處歡迎厚待는 貴社德化의所致

陳俊相氏

感想이라고 여러분압헤 말슴드릴것은 別로업습니다마는 잠간 말슴드리면 갈적 올적 陸路로 水路로 數萬里 路程을 빗나는『朝鮮日報旗』를 先頭에들고 무서운것이나 꺼리기는것 업시 一同이 모다 無事히 다녀온것은 무엇보다 감사할일이옵시다 더욱 玄海灘의 물결도 우리를 歡迎하는듯이 조곰한 波濤도업서서 나먹은 저로서도 조곰도 괴로운줄을모르게 도라온것은 참으로 多幸이엿습니다 그리고 旅行하는동안에 個人으로가서는 到底히 엇을수도업는곳을 만히 見學할수잇는것은 全혀 貴社의 偉大한 힘이올시다 더욱 가는곳마다 大歡迎이며 찻는사람마다 厚待를하여주는것은 이야말로 『朝鮮日報』의 惠澤이며 社長以下社員 여러분의 德化의 所致인가 생각하는바이오며 싸라 謝禮를 爲하는바올시다 더욱 擴張하시고 不拘하시고 出發할때와가튼 盛大한 歡迎을 하여주시며 … 하여주셧슴에 對하야 무엇으로써 感謝의 말슴을 드렷스면 조흘넌지 모르겟습니다 見學하고온바를 具體的으로 들어 感想의 말슴을 엿줍기까지 아즉 머리가 整頓되지못하여 大端히 未安합니다마는 보온것이 모다 驚嘆되는것뿐이요 듯는것이 모다 感動되는것뿐이엿섯기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큰 刺戟을 밧고 이땅을 다시 밟게된것이옵시다

그만못지안허 奮鬪努力하면

洪性欽氏

먼저 貴社에 對하야 무엇으로써 感謝의 뜻을 表하얏스면 조흘넌지 모르겟습니다 우리가 滿足한 觀察을 꾸마치고 一行이 平穩無事히 歸京한것은 여러분의 念慮하여주신 德澤인가합니다 먼저 우리의 눈에 띄인것은 山이란 山은 모다 茂盛한 樹木으로 싸여잇는것이엿습니다 그리고 神戶、大阪、東京各地의 商工會社에서 우리의 觀察團을 爲하야 歡迎하여주며 주서서 充分한 見學을 할수잇슨것은 무엇보다도 感謝하여마지안는바옵시다 各地를 돌아단이며 깁히느긴바는 첫재 그들은 勤勉하야보이며 둘재 모든點에잇서서 規模가 整然하고 셋재 市街、工場、商店等이 깨끗한點이엿습니다 그러나 大阪、神戶等地의 商業會議所사람들을 맛낫슬때 그들은 말하기를 이와갓치 隆盛한 今日의 產業도 不過數年來의 努力의 結晶이라고하니 우리朝鮮의 產業이 오늘날에잇서서는 비록이와갓치 貧弱한것이나 우리들의 奮鬪努力如何에잇서서는 남에게 遜色이업시될수잇다는 確信을 엇고 故土를밟는것은 저의 이번 旅行의 最大收穫의 하나이엿다고생각합니다

資本만잇스면 經營은可能해

黃利善氏

저역시 具體的으로 感想을 말할 準備가 업는것은 매우 부끄러운바올시다마는 이번 旅行에 第一깁히 늣긴바는 그들이 만들어내고잇는 機械라든지 其他物品이 實로 훌륭하지마는 우리손으로도 全然 만들어내지 못할것이라고는 생각되지안흡니다 大資本의 威力만잇다고하면 지금생각하고잇는것보다도 比較的쉽게 될줄로 確信하는바올시다 그러나 工場안에서 일하고잇는 職工들이 秩序잇고부지런한것은 우리들의 크게 배워야될것임을 늣겻습니다

날자가더길어서 좀더잘보앗더면

閔丙世氏

特別히 感想이라고하야 여러분께 말슴드릴것은 업습니다마는 먼저 貴社에 萬腔의 感謝를 드리는바올시다 서울을 떠나기前에는 二十日동안이라면 너무나 지리하지나안흘가하고 오히려 念慮를 하엿더니 진작 건너가서 여러곳을 잘 보고나니 時間이 좀더잇섯스면 이곳도 좀더보고 저곳도 좀더 잘보앗더면 하는생각이 납니다 事實 지난 二十日동안은 참으로 愉快하엿스며 有益하엿습니다 그런데 先進各地의 產業을 觀察하고 文明의 空氣를 마셔 새로운 智識을 바드려 貢獻한 우리 朝鮮의 產業開發과 文化向上에 큰 貢獻이 잇기를 企圖하시는 貴社十五大事業의 하나인 이 『產業視察』團의 『멤버』의 末席을 더럽힌 저로서 지금 이자리에서 그 壯大한 企圖에 適合한 新智識을 披瀝치못함은 가장 遺憾으로 생각하는바입니다 마는 건너가는곳마다 다만 感歎하는바입니다 山紫水明은 그곳山川의 特徵인것도 것이고 大都會地에 櫛比한 建物을 처다볼때『쇼-윈도-』에 整然하게 陳列해노흔 物品을 보기에도 산뜻한 商店안을 드려다볼때 工場의 規模가 보지안코는 想像할수도업시 雄大하며 그안에서 일하고잇는 職工들의 勤勉이 참으로 훌륭하게 여이 사람이 作業하는것이 맛치한사람이 하고잇는것가티 敏捷하고 規則的인것을 볼때나 親切第一主義로 사람을 對하는것을 經驗할때 우리는 그곳의 進步發達에 다만 놀날뿐이엿습니다 그리고 寶塚이란곳을 가보니 本來 山間의 寒村에지나지 못하엿다는곳이 무슨 재조로 이와가티 훌륭히 되엿는가를 눈앞에보면서도 疑心치 안흘수업섯습니다 그리고 周圍여러사람의 制止와 反對를 一蹴하고 이寶塚을 建設하엿다는 小林一三氏의 勇斷과 先見에 다만 敬服할뿐이엿습니다 그곳에 잇는演劇場을 볼때 저는 춤추는 少女들의 純眞함에 놀랏습니다 또한 大東京의 變遷이야말로 여러가지點에잇서서 저를 놀라게하엿습니다 첫재 눈에띄이는것은 市街地의 整頓과 … 十萬의 生靈을 無慘히도 빼아서간 大正十二年大震災前의 東京을 본 저로서는 만흔 사람이 交通機關을 利用하고 徒步하는 사람이 적은것을 볼때 現代日本이 얼마나 機械化하엿다는것을 생각하고 새삼스럽게 늣기지안흘수업섯습니다 도라올때 連絡船우에 가만히누어서 二十日間見學의 總決算을 하야보니 今日의 日本內地는 마치 美人이 華麗한 丹粧에 몸을싸고 잇는것가티 생각되엿습니다 그리고 前後左右어느모로보더라도 어엽부다 우리도 돈만잇스면 저러케 될수가잇슬터인데 하고 우엿스나 다시생각하야보면 事情은 그와가티 單純한것이아니다 돈만가지고는 到底히 不可能한것이오 첫재로 必要한것은 國家敎育의 一般的普及이라는것을 痛感하엿습니다 다음에는 各處를 旅行할때 그곳에잇는 商工會議所 東京에서는 日本電報通信社等에서 베푸러준 親切한 待遇라든지 吳海軍工廠에서 將校가 親切한 案內를하여준데對하여서는 無限히感謝하엿습니다

工場規模가크고 秩序잇슴에驚歎

李東奎氏

이번 觀察旅行中에 저의 腦는 참으로 驚嘆과 失望의 連續으로 複雜하엿섯습니다 어느點으로 보던지 이번 旅行은 우리에게 效果가 업지안흔 것뿐아니라 만흔 刺戟을 밧고 도라온것은 效果의 最大한것으로 確信합니다 그리고 驚嘆된 것을 一一히 들려면 限이업습니다마는 그가운데 한가지만을 여기서 말슴한다면 저 東京에 잇는 王子製紙會社올시다 이會社는 아시는바와가티 全國主要地 二十餘個所에 工場을 두고 資本金이 三億圓이라니 우리 商工業界全體를 合하드래도 이會社하나만못하니 참으로 놀라지 안흘수 업습니다 그리고 그工場의 生産過程이 高度로 有機化하여잇는 點은 보고온 저로서도 一一히 말슴드릴 智識이업는것을 섭섭히 여깁니다 다음에 商業은 엇더합니까? 그네들장사야말로 自己네가 만들어낸 物品을 自己네가 賣買하는것이지만 우리의 장사라는것이야 다른사람이 만들어노흔것을 겨우 사드려다가 다시팔고 사는데 지나지못하는것이아닙니까 左右間 이번 旅行에잇서서 어든바 刺戟 衝動은 貴社의『產業觀察團』을 通하야서만 可能한것임을 感謝하여이는바올시다 日本이 今日의 大發展을한 原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야볼때 저는 그네들의 勤勉自進 하야 自彊不息하는 性質 그것에 잇다고 確信합니다 그러면 우리 社會가 이와가티 貧弱하여진 原因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先祖들이 商工業을 輕視한것이 遠因이요 우리들은 秩序가업고 勇往邁進하는 性質이 不足한點이 近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가티 彼此의 長短을 比較케하야 주신 것은 참으로 貴社의 偉大한 德澤이며『產業視察團』은 民族的 一大事業임을 밋는바오니 將來로 더 擴張하도록 …

◇比叡山上의產業視察團一行

小規模의工場을 더만히보앗도면

金龍宗氏

貴社의 이번 行事에 對한 感謝의 말슴이나 그곳에서 바든 歡迎厚待에 對한 謝禮의 말슴은 이때까지 여러분께서 하신바이니까 저는 그말슴은 여기서 다시 反復하는것은 略하기로하고 이번 觀察旅行中에 생각된 不平不滿을 좀 말슴드리려 합니다 첫재 우리가 大阪에잇는 花王石鹼工場觀察을 갓슬때 工場안은 그럭저럭 案內를 해주엇스나 우리들이 도라올때 겨우 거긔에서 심부름하는 女子가 나와 갓슨뿐이며 비누한개를주고 그냥들여 보내니 이런법이 잇슬리가잇나요 그래도 朝鮮을 代表하야 갓다고해도 過言이아닌 우리 產業觀察團에 對하는 待接으로는 좀 薄切한듯한 생각이 낫습니다 數百金을 드려 廣告도하는데 無料로 自己네 廣告를해줄 觀察團을 좀 厚待하드라도 損은 안되겟지요 다음에는 京都市染織試驗場을 구경갓슬때 … 저는 참으로 듯기만 하엿습니다 그것은 明治二十年頃에 百萬圓의 巨額을드려 設立한것으로 營利機關이아니오 中小商工業者의 便宜를 圖謀하는것이 目的이라고합니다 資本의基礎가 貧弱한 우리 商工業者들에게는 듯기만하여도 口味를 돗게하는 消息이아닙니까 우리들에게도 이런 機關이 하나라도 잇다면 얼마나 조켓습니까 그다음에는 神戶商業會議所를 갓슬때 거긔잇는 사람이 工業立國의 必要를 力說하는것을 들엇습니다 이것은 一理잇는 說이라고 생각되엿습니다 勿論 工業化한다하드라도 一朝一夕에 되는것은 아니겟지마는 原始的農業形態를 벗어나지못한 우리들의 三思할바가아닌가요 全體的으로 回顧하야볼때 저는 떠나기 前에가젓든 期待가 過大하엿든지는 모르겟습니다 만흔 이번의 觀察마는……

秘密主義에 斷然奮起決意

朴厚榮氏

洋靴工場을 經營하는저로서 第一 注意깁게 본것은 大阪에잇는 某石鹼工場인데 『아루카리』에다 脂肪을 混合하야 비누를 만드는것은 常識인데 그것만을 뵈와주고 이以上 더必要한 部分은 보아도모른다든지 秘密이라든지하는 口實로 보여주지안흔것은 퍽遺憾으로 생각하엿습니다 엇떠케하여서라도 우리손으로도 그들에게 지지아니하는 훌륭한工場을 만드러야되겟다는 구든 決心을하고 도라왓습니다 徹底한 저의 이決心이 엇떠한 形式으로 具體化될넌지는 將來에屬한 일이니까 이자리에서 斷言은 못하겟습니다마는……

視察의效果絕大 본바들것이만허

朴容滿氏

各方面으로 여러분이 感想의 말슴을 다하섯기때문에 저로서는 別로드릴말슴이업습니다마는 제가떠나기前에 이번觀察旅行은 우리商工業에 적지안흔 參考資料가되며 도움이되리라는 생각이엿는데 實로 的中한것을 發見한것은 참으로 愉快한일이올시다 機械의整備 工場의高度有機化 職工의訓練等은 우리가 반듯이 본바들바라고 생각하엿스며 그리고 東京에잇는 明治製菓會社 觀察을갓슬때 그工場안에 걸려잇는 『포스타-』는 저의 興味를 百倍나 더하게 하엿습니다 "買ふ氣で作れ"(사는셈치고 만드러라)! 얼마나 意味深長한 文句이며 자미가잇습니까 제가 經營하고잇는 精米工場에도 이와가치 "먹을때의 생각으로 찌어라!"라는 『슬로-간』을 부처노흘려고 생각하엿습니다 엇잿든 우리社會는 모든方面에 잇서서 하로밧비 現狀을 打破하지안흐면 안되겟다고 決心한것이 저의 이번 觀察의 總收穫이엿스며 이와가티 有益한 『產業觀察團』을 主催하여주신 社長以下社員여러분과 直接引率의 努力을하신 咸尙勳氏에게 感謝치안흘수업습니다 아무조록 觀察團을 主催하신 朝鮮日報社가 學校가되고 團員된 우리가 學生이되여 將來까지라도 彼此에 緊密한 連絡을 取하도록 하여주섯스면 고맙겟습니다

米倉龍塘浦進出

朝鮮米穀倉庫에서는 일즉이 黃海道龍塘浦港의 發展에 着眼하고 進出의 機會를 엿보고잇든바 黃海道當局과 再三에 亘하야 折衝한 結果 同港의 農業倉庫(二百坪)를 買收하기로 十四日決定하얏다 同社에서는 此外 새로 五百坪의 倉庫를 新設하기로 되엇는데 이에 伴한 支店開設은 七月頃으로 될模樣이다

鑛業權設定·移動

◇鑛業權設定

登錄番號	鑛種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一二八九六	金銀鉛亞鉛	慶北迎日郡烏川面	四月十六日	仁川府本町 代表者松尾常一郞 滿洲國新京敷島通 佐野日出男
一二八九八	金銀銅	江原平康郡縣內面	同十七日	平康郡高揷面 代表者白○煥 鐵原郡於雲面 任興準
一二八九九	同	京畿江華郡兩寺面	同十八日	京城府壽松町 金貞淑
一二九〇二	金銀銅	慶北盈德郡丑山面 東海面	同	大邱府京町 代表者李世衡 同 柳璋熙

◇鑛業權移轉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九四四一	平北楚山郡楚松面	同	京城府寬勳町 金熙善
一〇六〇七	忠南公州郡灘川面木洞面	四月十三日	公州郡公州邑 崔延九
一一〇六三	咸南長津郡西閑面	同	元山府銘石洞 代表者金浩鉉 永興郡鎭坪面 韓成華
一〇一八八	咸南安邊郡新茅面 江原淮陽郡上北面	同十四日	京城府吉野町 內田縣五郞
九七〇五	黃海谷山郡上圖面	四月十三日	順川郡順川面 金炳鎰
一一二六二	平北義州郡水鎭面	同	大阪市西區靭南通 金成鑛業株式會社
一一八四六	江原洪川郡斗村面	同	日淸生命館內 東京市目黑區下目黑 重本滿夫

◇鑛區分割에因한鑛業權設定

登錄番號	鑛種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一二九〇〇 (舊登錄第一〇八九八號)	黑鉛	咸北吉州郡長白面	四月十八日	吉州郡吉城面 高慶元
一二九〇一 (同)	同	同	同	同

◇共同鑛業權者脫退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事項
一〇九六八	平北渭原郡和昌面	四月十日	吳官鳳任意脫退登錄
一一七九六	京畿廣州郡西部面	同十五日	鄭文護任意脫退登錄
九〇〇〇	平北定州郡高安面	同	崔基萬任意脫退登錄

◇鑛業權取消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事項
一〇八九八	咸北吉州郡長白面	四月八日	鑛區分割에因함

◇鑛業代理人屆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鑛業權者	事項
一二二七五	平北寧邊郡獨山面	金貞完	京城府寬勳町金春基를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一年四月十三日屆出
一二〇七七	慶南河東郡玉宗面	東洋陶器株式會社	河東郡玉宗面井上元一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一年四月十五日屆出
七三五九	平北龜城郡龜城面	三成鑛業株式會社	龜城郡館西面興半時虜를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一年四月十七日屆出
一〇三三七	慶北達城郡嘉昌面 慶山郡南川面	石井網治郞	達城郡嘉昌面松澤吉造를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一年四月十七日屆出
七〇七五	同奉化郡春陽面、法田面	苦米地造酒彌	奉化郡春陽面井上佐吉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一年四月十七日屆出
一一四八三	咸南端川郡北斗日面	樊大輔	端川郡北斗日面兒玉滿二郞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一年四月十八日屆出
三五〇一	全北長水郡溪內面	日本鑛業株式會社	長水郡溪內面佛木治郞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一年四月二十日屆出
六六九〇、六七三四、九〇二六	江原麟蹄郡東面、同旌善郡東面、三陟郡下長面	昭和鑛業株式會社	鑛業代理人平井庭治郞을解任하고旌善郡東面助川良夫를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一年四月十九日屆出
一〇七三〇	慶南統營郡一運面東部面	宋鎬守	統營郡一運面中井榮一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一年四月十九日屆出
一〇七八八	江原伊川郡方丈面 咸南德源郡豐下面	小林鑛業株式會社	德源郡豐下面白濱榮太郞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一年四月二十一日屆出
一〇一九九	咸北慶興郡豊海面	本多庄之助	慶興郡豊海面田中政治를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一年四月二十日屆出

黃昏 【86】

韓雪野 作 安夕影 畫

오해 (八)

한참동안 침묵이 계속되엇다 그것은 사장에게도, 경재에게도 무거운 기분을 맨처주는 것이엇다.

그럴판에 마츰 전화가 따르릉 울며 오자 사장은 곳 그것을 바다가지고,

『응, 현옥이냐?…인제편찬냐。』

『아, 지금 경재집에 들려오는길이야?……경재군은 지금 여기와 잇다……』

하고 말을 끈코 경재에게로 전화기를 돌렷다。

『네、여기와 잇습니다。……아니 어디 잠깐 들림이 잇서서、인제 곳 가봐야겟습니다……글세올시다。거기 가봐야알겟습니다。그사람만 만나면 시간이 좀 걸릴것 갓습니다……네、밤에는 집에 잇게될듯합니다……아니 보아서 대에 들리지요』

경재는 전화를 끈코며、현옥에게 어떠로 간다고 핑게를 햇스니까 현철의 주인으로나 가 볼가 하는 생각을 하다가 문득 현철에게서 부탁 바든일이 생각나서,

『참 요전에도 잠시 말슴 드렷습니다만……공장주임과 말슴하서서 그사람을 공장에 너로록 해주십시요』

하고 다시 이어서 공장주임에게 자기가 한번 부탁한 일이 잇다는것을 말하고, 또 이미 말끔 이저버렷슬 사장의 기억을 살려주기 위하야 현철의 사람됨을 다시 소개하여 주엇다.

사장은 개갑게 응하며 경재의말을 뭇고 잇다가, 어떠케돼서 경재가 그런사람, 즉 일개 직공의 자리를 구하는 사람을 알게 되엇스며, 겸하야 그가티 직업주선까지 애써주느냐 하는 말을 뭇고 그말을 물어가는가운데서 경재는 그런 사람과는 인연이 먼 처지에 잇는터이요 따라서 경재의 명예를 위하여서도 그런주선은 될수잇는대로 삼가하는것이 맛당하다는것을 암시한다음,

『그럼나 이번은 기왕 말이난 조캇네』

하고 그리로 밀어버리엇다。

경재는, 사장이 자기의 말을 잘 알지 못하니까 그러케 생각하는 것이라고도 생각하고도 그는 자기를 위하는 말로 그러케 말하는것이러라고도 생각하엿스나, 그러면서도, 경재에게는, 안공서라는 돈과 위치를 가진 사람의 사위니까 네 처신은 네 맘대로 해서는 안된다。모든 행동을 삼가고 허잘것 업는 사람과 사괴여서는 안된다……하는 말가티 생각되어서 적옥히 불쾌해 젓다。

그래서 경재는 또 한참동안 아무 말도 업시 가만히 이리저리 근널고 잇섯다。

그만 그자리를 물러나오고 십흔 생각도 잇섯스나 려순이와 약속한 일도잇고 또 려순에게 대한 사랑의 래도——즉 려순이를 금후 어떠케 하려나? 하는 궁금한 생각도 잇고 해서 그것을 알아볼 기회를 가지라고 그는 불쾌한대루 그자리를 떠나지안햇다。

얼마를 지나서야 키적은 급사, 순봉이가 사장에게 오는 편지를 들고 사장실로 들어와다……때는 되엇다。려순의 사직원도 응당 저편지ㅅ속에 끼여잇스리라……하는 생각과 동시에 경재는 까닭업시 가슴이 약간 뒤설레지는것을 느끼엇스나 구지 그것을 참아가며 그편지와 사장에게로 넌즛이 시선을 보내고 잇섯다。

한편, 사장은 이러한 사정을 통 알지못하니만치 아주 예사로운 무심한·얼골로 편지뭉치를 바다들고 한가한 시간에서 일꺼리나 만난드키 한장식 단녀히 차즘기 시작하엿다。

『뭐?』

무심히 편지를 보아내려가든 사장의 눈이 당황히 이러케 말하는것을 보는 동시에, 그의손에 쥐여진 편지가 눈에익은 려순의 글씨인것도 경재는 곳 깨다를수 잇섯다。

그리고 사장이 얼른 려순의 편지를 여러 편지속에 석거가지고, 꽉자 설합속에 던저버리는 그 당황한 기색을 엿으며 경재는 그와 반대인 일종의 안심비슷한 승리감을 느끼는 동시에 어떤 악(惡)의 용자가 어느시기에 잇서서 자기의 소행을 뉘우치는것을 보는때와 가른 감사비슷한 느낌을 또한 께달앗다。

그러면서도 그는 사장에게 좀더 반성을 재촉하는듯이 그에게서 시선을 떼지안코 또 그가 혼자ㅅ말모양으로 중얼거리는것도 못본체하고 일부러 침묵을 직히엇다。

반성의 시간을 좀 더 길게 해주고 십흔것이다。